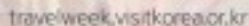


태극기 휘날리며
동해 바다로

9.12~9.29



2019가을 여행주간엔, 좋아하는 취향 따라 떠나보세요

지금바로 **여행주간** Q 을 검색해보세요



막걸리의 힘

김주대 글·그림

아이구, 저노무 막걸리는 언제 또 사서 실었어요?

거서 힘이 나오는데 실어야지.

영감, 힘들마 좀 쉬었다 가요.

임자 들고 있는 거나 여 올리고 더우마 그늘에 좀 쉬었다 와.

아니요, 같이 가요.



김주대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창작과비평>을 통해 시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그리움의 넓이>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 시화집 <그리움은 언제나 광속> <시인의 붓> 등이 있다.

시가 문자화된 노래라면 그림은 시의 시각적 확장이라 생각하며, 시를 그림으로 그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페이스북 '김주대'

이번 주엔



대폭 확대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은 포항시 일원에서 〈2019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을 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아 '환대의 도시 포항, 70개의 달, 만 개의 불'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은 종전 영일대해수욕장 단일 장소에서 구 포항수협냉동창고와 송도해수욕장, 꿈틀로 등으로 크게 확대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 기간 전문 작가 작품 12점, 철강기업과 작가의 협업 작품 5점, 철강기업 작품 10점, 시민 참여 작품 등 총 32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진행되는 다양한 국내외 거리극, 버스킹 공연과 포항의 '스틸아트'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 마켓이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구 포항수협냉동창고에서는 공간의 기억을 담은 특별한 전시와 영화제, 새로운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기간 9월 7~28일 °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선착로 78 °문의 054-289-7852~8

'낭만향구 목포 버스킹' 가을판

지난봄 전남 목포를 낭만으로 물들였던 〈낭만향구 목포 버스킹〉이 재개된다. 저글링 쇼, 버블 쇼, 국악, 밴드, 댄스, 마술 등 다양한 장르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유달산 노적봉주차장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평화광장 △매주 금·토·일요일 북항노을공원과 원도심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가을 버스킹은 9월부터 10월 매주 금, 토, 일요일을 문화예술 축제로 수놓을 〈목포(愛) 가을(藝) 페스티벌(樂)〉과 연계해 더욱 풍성하고 활기차게 진행된다.

°기간 9~10월 매주 토요일

°장소 전남 목포시 유달산 노적봉주차장, 평화광장 일대

°문의 061-270-8991



입도 즐거운 북한 꽃천지 축제

국내 최대 규모의 가을꽃 잔치 〈하동 북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가 가을이 깊어가는 9월 하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하동군은 '느끼세요 가을 향기, 즐기세요 꽃천지'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축제에서 40여 개의 무대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를 마련해 관광객을 맞는다. 특히 올해는 이색 작물인 핑크물리와 백일홍, 천일홍, 해바라기, 체험용 작물단지를 새로 조성해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기간 9월 20일~10월 6일

°장소 경남 하동군 북한면 경서대로 2446-6 북한역 일원

°문의 055-884-1235

예용해 수집 민속품·육필 원고 전시

국립민속박물관과 청도박물관의 공동 기획전 〈언론인 예용해, 민속문화의 가치를 일깨우다〉가 청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경북 청도 출신인 예용해는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기 전부터 민속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속공예를 문화재로 지정·보존하는 데 기여했고, 사라져가는 민속품을 수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수집한 돌 공예품, 화로, 향로 등 민속공예품과 육필 원고 취재수첩, 조사 카드, 필름, 스크랩북 등 6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기간 9월 3일~11월 24일

°장소 경북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567 청도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054-370-2281





착한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

피곤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요즘, 분노를 자아내는 악인이 없는 착한 영화가 등장했다.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는 아이 같은 아빠 '철수'(차승원)가 어른 같은 딸 '셋별'(엄채영)과 예상치 못한 여행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힘을 내요, 미스터 리>를 통해 12년 만에 코미디로 복귀하는 차승원은 극중 철수역을 맡기 위해 파마머리, 러닝셔츠에 가까운 흰 상의를 입고 등장하며 이전 작품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또 철수

동생 역을 맡은 박해준은 악역에서 벗어나 첫 코미디 장르에 도전해 이 둘의 재미 또한 기대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인 만큼 연휴 개봉작 가운데 가장 가족들과 보기 적절한 장르의 작품이다. 감독 이계벽, 러닝타임 111분,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일 9월 11일

광주과학관 추석맞이 큰 잔치

국립광주과학관은 한가위를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과학 큰잔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 놀이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 '대회마당' '이벤트 마당'으로 펼쳐진다. 세계 각국의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보름달 망원경 만들기, 나만의 제기 만들기, 클레이 추석음식 만들기 등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물놀이를 비롯해 샌드아트 공연, 구연동화, 사이언스 매직쇼 등 이색적인 볼거리도 선보인다. 이 밖에 아빠 허벅지싸름 대회, 엄마 팔싸름 대회, 온 가족 제기차기 대회도 열린다.



°기간 9월 12~15일(13일은 휴관) °장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35 국립광주과학관 °문의 062-960-6210



김순기 회고전 '게으른 구름'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작가 김순기 회고전 <게으른 구름>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개막한다. 서울대 서양화와 졸업 후 1971년 프랑스로 건너간 김순기는 동서양 철학, 시공간 개념 탐구 등을 바탕으로 정형화

할 수 없는 예술과 삶의 관계를 고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전시명 <게으른 구름>은 김순기가 쓴 동명의 시 제목으로, 작가가 지향하는 예술의 의미와 삶의 태도를 은유한다. 전시는 그의 예술 세계를 '일화(一畵)-활쓰기와 색동' '조형 상황' '빛과 시간으로 쓴 일기' 등을 주제로 구성했다. 작가의 예술 세계를 회화, 설치, 영상,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여준다.

°기간 8월 31일~2020년 1월 27일 °장소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문의 02-3701-9500



국내외 작가 33인 미인도 100점

미인도 100여 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전시명 <자인 姿人>은 기품 있고 맵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전시는 한국의 미인도와 동서양의 근대 미인도, 동시대 미인도로 주제를 나눠 구성됐다. 회화, 판화, 사진, 조각, 영상 등 다양한 매체 속에 표현된 우아하고 품위 넘치는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읽을 수 있다. 이당 김은호, 월전 장우성, 목불 장운상, 박영선, 권옥연, 김형근, 마리 로랑생, 윤리, 알렉스 카츠 등 국내외 작가 33인의 작품이 전시된다.

장만진 기자

°기간 8월 28일~10월 13일

°장소 경기 김포시 모담공원로 170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문의 031-996-6836

Weekly
공감
No.520
2019.09.09~22

01 **공(共)감 칼럼**

막걸리의 힘

02 **이번 주엔**

〈남만 항구 목포 버스킹〉 등

06 **정상외교**

아웅산 수찌 만나 신남방정책 협력 '잔결음'

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08 재정 적극 역할로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12 국민참여예산 채택된 4명 릴레이 인터뷰

16 적극 재정→성장률 제고→재정 건전성 향상 '선순환'

특집**치매국가책임제**

18 '노인을 위한 마을' 기억 다시 꽃 피우고 존엄 살려

23 이동영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장 인터뷰
"문턱 낮추고 검사-예방-치료 연계"

26 시설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돌봄으로 관리

28 **공감현장**

어르신 맞춰 주거부터 요양, 생활까지 지원

리포 - 올릉도 '나라 사랑 여행'

32 눈도 입도 마음도 즐겁게, '태극 패션' 발길 북적

37 5m 바닷속 대형 태극기 펼쳐며 벅찬 감격

38 인포그래픽/올릉도 관광지도

2019 가을 여행주간

40 '취향저격' 가을 여행, 여기 어때!

44 DMZ 평화의 길

48 DMZ-train

50 '방탄 성지순례' 톱 10

한가위 특집

54 '황금 연휴, 꿀 생활정보'

56 갑자기 '탈'나면 '앱'으로 응급처치를!

일본 수출규제

58 누가 한일 '대결의식'을 부추기는가

62 기술독립 현장/엘베스트GAT
"국산화하면 세계시장이 다 우리 겁니다"66 **정훈이 만화- 이슈를 품은 역사 이야기**
노적거리68 **기획 - 한국경제 새로운 미래 ⑧****7대 성과 <끝>**

미래지향적 혁신성장으로 '한국경제 재도약'

72 **연재/이정모의 '거의 모든 것의 과학' ③**

전세계 시간을 통일한 철도의 힘

74 **연재/차우진의 '문화 트렌드 리포트'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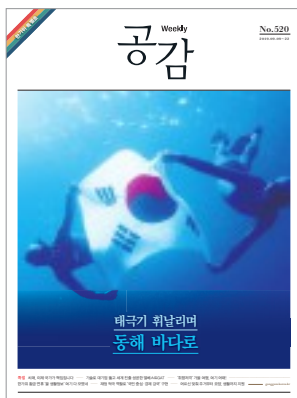
호텔의 미래 큰 그림 그리는 '나우'

76 **연재/박인권의 '영화 다시보기' ⑤****프란시스코 데 고야 '1808년 5월3일'**

프랑스군 총구 앞에서 뭘 외치는 걸까?

78 **참여공감**80 **독자칼럼**

계절의 안부 살아가는 힘



신상권

커버스토리**태극기 휘날리며 동해 바다로**

올릉도가 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양국의 마찰이 심해지며 올릉도와
독도를 다녀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저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올릉도를 누비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프리다이빙 회원들이
2019년 광복절을 기념해 올릉도
바다에 들어가 대형 태극기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발행일 2019. 09.09**발행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어진동) 문화체육관광부**발행인** 박양우**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203-3014**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인쇄제본** (주)다원**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08

2020년 예산안
국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해 채택된
4명을 만났다.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느낀 필요에 따라
아이디어를 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표적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바랐다.



18

특집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72만 명으로, 25가구 중
1가구 꼴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2년을 맞았다.
지역사회 돌봄으로
관리하는 고양
치매안심마을을
다녀왔다.

28



공감현장
어르신들의 주거, 의료,
요양, 생계 등을
맞춤으로 제공하고
살던 곳에서 지역
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살펴본다.



32

울릉도 '나라 사랑 여행'

강릉행 KTX 개통으로 울릉도 발길이 더 북적인다.
일주도로도 완전 개통해 속속들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
'독도 효과'로 '태극기 패션' 관광객들도 붐빈다.



62

기술독립 현장

수입산을 국산화한 뒤 대기업도 뚫고 세계시장에 팔아 성장하는 게
산업용 화학 첨가제를 만드는 엘베스트GAT의 성공 공식이다.
이러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업이 필수다.



68

기획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7대 성과는 뚜렷하다.
정부가 공들여온
그동안의 노력과
성공을 살펴본다.



아웅산 수찌 만나 신남방정책 협력 '잔걸음'

동남아 3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3일 오후 미얀마의 사실상 수반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의 상생번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대통령궁에서 연 정상회담 뒤 “오늘도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님과 나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양국의 국민들과 함께 경제, 문화,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번영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미얀마의 ‘지속가능 발전계획’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사람·평화·번영’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많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며 양국 정상이 합의한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며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양국 간 대표적인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촉진하며, 양국의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수찌 고문은 “이번 국민방문을 통해 한국이 아세안 내에서 지평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정부도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라카인 문제 해결과 같은 민족 간 화합,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얀마 평화프로세스는 7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내전을 종식하고 민주적 연방제라는 비전을 달성하려는 과정을 말한다.



2
1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3일 오후(현지시간) 네피도 대통령궁 환담장에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악수하고 있다. 2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월 3일 미얀마 윈 민 대통령의 부인 초 초 여사와 함께 네피도 국립박물관을 찾아 전시관을 관람한 뒤 나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3 태국을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이 9월 2일 오후 방콕에서 쁘라웃 짠오차 총리와 함께 한국과 태국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전기뚝뚝이(삼륜차)를 시승하고 있다. | 청와대기자단



3

수찌 고문은 “미얀마와 한국은 그간 동일한 경험들을 갖고 있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들, 거두고 계신 성과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은 비단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전세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세계 무역질서 위해 함께 협력하자”

앞서 9월 2일 태국을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은 ‘한-태국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질서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사용하는 등 자유무역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축소균형’을 낳는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맞서는 것은, 자유무역주의 혜택을 누려온

양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개방과 자유로운 무역은 태국과 한국이 과거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제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며 “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조속한 타결에 협력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규칙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강력히 지지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은 메콩 국가 간 경제협력기구 ‘에크멕스(ACMECS)’를 주도하면서 역내 경제협력을 이끌고 있다. 한국은 5월 ‘에크멕스(ACMECS)’의 개발파트너로 참여했고, ‘한-메콩 협력 기금’을 조성하여 연 100만 달러 규모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즈니스포럼에 앞서 4차산업혁명 쇼케이스에도 참석해, 쁘라웃 태국 총리와 함께 미래차와 스마트팩토리 관련 제품들을 둘러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태국이 공동개발중인 전기뚝뚝이(삼륜차)도 쁘라웃 총리와 함께 시승했다. ●

심은하 기자

재정 적극 역할로 ‘국민 중심·경제 강국’ 구현

513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은
한국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활력소’ 예산, 국민의 삶과 생활·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예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돌파구’ 예산으로 집약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 중심·경제 강국’ 구현 예산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혁신성장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제고 및 뒷받침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생활과 직결되는 국민 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43조 9000억 원(9.3%) 증가한 데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정부가 큰 의미를 부여했음을 엿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투자자와 수출 부진이 길어지면서
성장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① 혁신성장 가속화 | ‘D.N.A+빅3’ 육성에 4.7조원 집중 지원

정부는 경제 전반에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가속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업 혁신,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등을 선도하고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이른바 ‘D.N.A + 빅3’ 육성에 4조 70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D.N.A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뜻한다. 빅3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이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17.3%)으로 늘렸다. 원천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앞당기도록 올해 예산의 2배가 넘는 2조 1000억 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수급 위험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100여 개 전략 품목의 원천기술 자체 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1조 3000억 원의 대규모 R&D를 조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은 바로 제품화할 수 있게 기업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양산·실증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제품화에 성공하면 생산능력을 확충하도록 1조 6000억 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② 경제활력 제고 |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수출·투자 등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예산도 많이 늘어났다. 먼저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해 내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에 6000억 원을 투입해 4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하도록 정책자금을 20조 원 이상 보강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스마트 산단 10곳 조성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2개 예산 분야 가운데 가장 큰 폭(27.5%)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내년에 본격 추진한다. 첫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0조 4000억 원 투입해 도로, 철도 등 노후 SOC를 개량하고, 전국에 복합 문화·여가시설 280개를 신설한다. 둘째,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개별사업 진도에 맞춰 설계·착공비, 시범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다. 셋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 혁신적 신사업이 성장하도록 R&D와 사업화 자금 615억 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게 전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1.3% 늘렸다.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를 17만 개 늘리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직업훈련,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경제 전반에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가속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업 혁신,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등을 선도하고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이른바 'D.N.A + 빅3'
육성에 4조 70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2020년 예산안으로 달라지는 국민 생활

자료: 기획재정부

저출산 대응

결혼·출산	영구·국민임대아파트	2천 → 1만 호
	신혼희망타운	1만 5000 → 1만 9000호
	출산 전후 휴가급여	월 최대 180만 → 200만 원

보육·교육	온종일 돌봄	37만 → 40만 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450 → 550곳
	고교 무상교육	고2·3학년 시행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청년저축계좌 신설	월 10만 저축 시 30만 원 매칭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5만 → 35만 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만 → 29만 명
	역세권 공공임대	2만 → 2만 9000호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4인 기준)	최대 138만 → 142만 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	월 203만 → 월 207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가구 적용 제외 등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8만 1000 → 9만 명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돌봄	4000 → 7000명

노인	기초연금 인상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30만 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35만 → 45만 명
	노인 일자리	61만 → 74만 개

자영업자·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50개사,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1000 점포)	신규 146억 원
	구도심 쇠퇴상권 개조	13곳 118억 원

| ③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 사회·고용·교육 등 3대 안전망 촘촘히 보강

정부는 포용국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등 3대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부양의 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청장년층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등 7만 9000가구가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도록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만 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원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3학년에서 2~3학년으로 확대하면서 비용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을 최초로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인,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자립과 혁신을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득 하위 40%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13만 개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3000억 원 늘리고, 특례신용보증은 5조 원 확대했다. 특히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역세권 중심의 임대주택을 2만 9000호 공급하는 한편,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고용장려금은 20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25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늘린다.



| ④ 국민 생활 편의·안전 증진 | AI·5G 등 신기술 접목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생활 편의·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기존 인프라 시설에 AI·5G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최근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수관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질 이상 시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4000억 원을 투자해 19개 거점도시부터 우선 구축한다.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기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 2배 수준(4조 원)으로 크게 늘렸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국고지원 비율을 14%로 높인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외교 예산도 많이 늘어났다. 국방비는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33% 인상해 장병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한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기업의 대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 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4대 강국 및 신평방·신북방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10% 이상 증액했다. ●

원찬연 기자

2022년으로 계획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기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 2배 수준(4조 원)으로 크게 늘렸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14%로 높인다.

문 대통령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려는 의지 담은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8일 청와대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여기에 더해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려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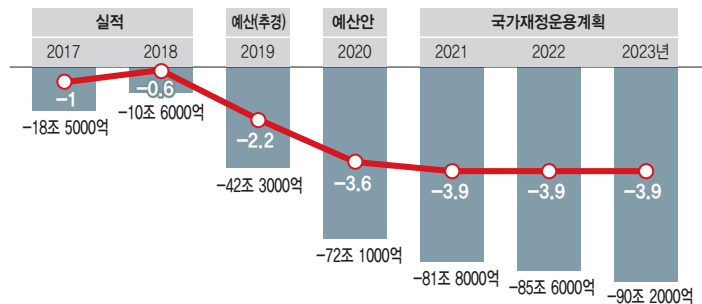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비한 예산과 국방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며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며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7.4%가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 넘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크게 확대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관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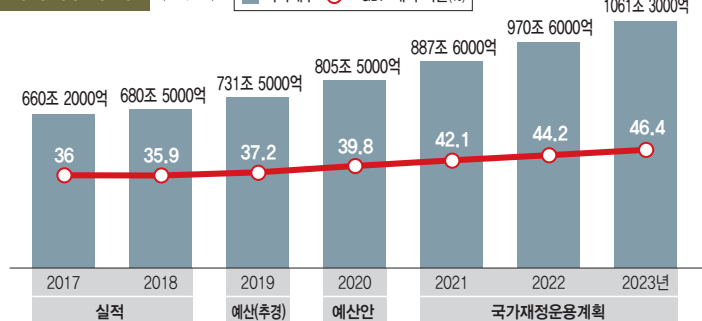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원) ■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익) ● 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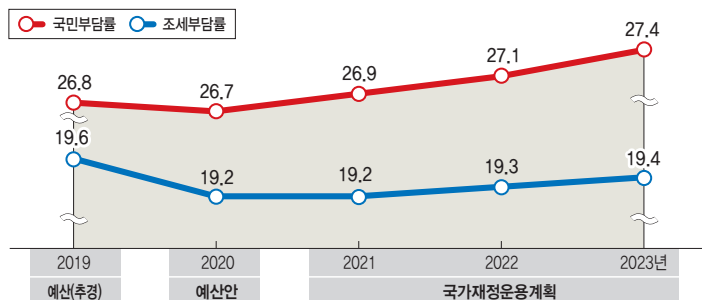
국가채무 추이

(단위: 원) ■ 국가채무 ● GDP 대비 비율(%)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등)





“울릉도~독도 뱃길 여정 생생한 영상 공유”

박광우 씨는 한국해양재단에서 문화예술인과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독도 탐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박광우



‘독도 입도 추억 만들기’ 박광우 씨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울릉도에서 배를 타면 이동하는 데만 2시간 가량이 걸린다. 기상 사정이 좋지 않으면 섬 주위를 맴돌다 독도를 배에서만 바라보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관광객들은 독도 입도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항해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입도에 성공해도 길게는 30분, 짧게는 20분밖에 땅을 밟지 못해 독도의 경관과 생태계를 충분히 즐길 수 없다.

박광우 씨는 한국해양재단에 입사한 뒤 독도를 1년에 많게는 10차례, 적게는 5차례 방문한다. 문화 예술인과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독도 탐방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독도에 갈 때마다 짧은 방문 시간과 기상 사정 등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관광객들을 보며 독도 입도 순간을 기억하고 그 추억을 간직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장점을 살려 독도에 들어가는 배를 촬영한 영상을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자는 ‘독도 입도 추억 만들기’를 올해 3월 국민참여예산에 건의했다.

먼저 선착장 등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장비를 독도에 설치한다. 독도 여객선은 울릉도에서 출발할 때부터 독도의 실시간 화면을 승객에게 상영한다. 독도 입도에 성공한 관광객에게 자신의 입도 장면이 찍힌 영상을 제공해 가족, 친지 등 많은 사람과 누리소통망(SNS)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에서 독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면 바쁜 일상으로 독도에 가지 못하는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외국인도 스마트폰 등으로 독도의 현재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박 씨는 “관광객들이 독도 방문에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도록 추억을 간직할 기회를 국가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했다”며 “SNS를 통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생생한 여정이 공유되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박 씨의 제안을 반영해 새해 예산에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항목으로 5억 9400만 원을 배정했다. 박 씨는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보니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책 제안을 한 국민이 공무원과 함께 논의해 더 나은 정책으로 만들어 실행할 수 있다면 한층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는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개최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이원영 씨



이원영 씨는 2002년
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
하고 있다. 이원영

“임산부와 친환경 농업인 둘 다 도움 되게”

2002년 농업법인 도담을 세운 이원영 씨는 전국에 있는 600여 농가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있다. 올해 초 농업 관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소비 부족과 수입농산물의 공세로 친환경 농업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줄여 지속 가능한 토양을 물려주려는 노력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토로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제로 이어졌다.

얼마 뒤 충청북도가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 씨는 무릎을 쳤다. 산모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국가가 건강을 책임지고, 농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이 씨는 국민참여예산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건의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매달 두 차례 공급하자면 이 제안은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격성 판단에서 지역 농가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소비 증진,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유통구조 개선 효과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국민 참여단 400명의 투표를 앞두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문제가 거론됐지만, 농식품부 담당자가 친환경 농산물 사업자 선정과 지원 대상자 범위 등 사업 집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뒤 논란은 해소됐고,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90억 6000만 원이 반영됐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씨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껴주어야 할 임산부와 미래 농업의 핵심인 친환경 농업인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기회가 생겨 정말로 기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취지는 훌륭하지만, 이미 결론은 나 있으면서 요식행위로 하는 걸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그는 “제안부터 채택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되는구나’ 느꼈다”고 말했다.

더 치열한 공론화 과정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이 진정 주인 되는 시대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바랐다.

“방법뿐 아니라 환경·질서 등 긍정적 변화”



이호윤(뒷줄 가운데) 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자율방범대원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 이호윤



‘외국인 자율방범대’ 이호윤 씨

대부분의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자신이 사는 곳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비교적 활성화한 곳은 영등포구와 구로구다.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이호윤 씨는 평소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지켜보며 같은 국적의 사람이 계도하면 저항과 반발심이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됐다. 같은 국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대원들은 그 존재만으로 자연스럽게 질서 유지가 되었고, 방법 효과는 아주 컸다. 특히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시행된 뒤 각종 음주 소란과 쓰레기 투기 등 기존 문제들이 많이 개선됐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2016년 2016명, 2017년 2233명, 2018년 2638명, 올해 4월 2908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차량 등 지원은 부족해 넓은 지역을 걸어서 돌아보고, 잠깐 실 수 있는 쉼터마저 없어 숨 돌릴 새도 없이 해산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예산 부족으로 새롭게 참여한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은 모자, 조끼, 방한 점퍼 등 의류와 경적, 불뿔, 손전등 등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씨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올해 4월 국민참여예산에 건의했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져 내년 예산에 1억 2400만 원이 반영됐다. 2017년 이후 참여한 대원에게도 의류와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범죄예방 교육의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늘리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씨는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늘어나면 방법뿐 아니라 음주, 소란, 환경, 질서 등 생활 모든 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직접 제안한 내용이 실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자신을 ‘국민 참여 활동가’라고 소개한 이 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내에서 열린 대형 국제대회만 15차례 이상 봉사자로 활동했다. 지금도 한국수자원공사,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등에서 활동하며 이번 국민참여예산에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확대 실시’를 포함해 모두 26건의 제안을 올렸다. “평소 국민이 내는 세금과 나라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등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세금이 많이 쓰이지 않아도 될 곳도 국민이 직접 진단하는 제도가 생기길 희망했다.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김인범 씨



고려대 의생명연구센터
김인범 연구원이 프로젝
트 매니저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 김인범

“의료기기 안전하게
관리·사용할 수 있게”

7월부터 의료기기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까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UDI)가 의무화됐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도 가동됐다.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부착해야 하며,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표준코드 및 제품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의 피해 확산 우려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기업은 의료기기 물류와 자산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의생명연구센터 연구원이자 동국대 의료기기산업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인범 씨는 한국 의료기기산업에 관심 있는 이들과 함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연구했다. 양질의 국내 의료기기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의료기기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의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긴 의료기기의 생산라인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게 됐다. 또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위반 우려 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불법 의료기기나 문제 발생 의료기기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제조·수입별, 품목별, 포장단위별로 부여되는 표준코드가 복잡한 데다 처음 도입돼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이 활성화하려면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씨는 국민참여예산에 △제조·수입업체를 위해 정보 제공, 민원, 상담 등이 가능한 대국민 전용 창구를 구축하고 △영세한 의료기기업체의 표준코드 및 유통관리 전산화를 지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교육하고, 홍보물 등을 제작해 배포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예산에 3억 5400만 원을 반영했다.

김 씨는 “젊은 과학자로서 인문학·사회학 등 다른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제안했다”며 “국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원낙연 기자

적극 재정→성장을 제고→재정 건전성 향상 '선순환'

8월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변화가 있겠지만 제출된 정부 예산안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도 2019년에 이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2020년 총 수입 규모는 약 48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수입은 약 292조 원으로 0.9% 정도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에 따라 4.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지출은 약 513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수준이다.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적자폭이 커져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국가채무도 2019년보다 증가한 GDP 대비 39.8%로 예상된다.

2020년 정부예산에서 나타나는 분야별 자원 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 사용되는 예산이 가장 커서 181.6조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다. 그중 일자리 분야의 지출은 2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3%로 큰 폭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전년 대비 27.5% 늘어난다. 그 외에 두 자리 숫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실현하는 분야는 환경,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각각 전년 대비 19.3%, 17.3%, 12.9% 증가할 예정이다.

장기적 경제체질 개선 및 성장동력 확충

세계경기의 부진,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은 우리 경제에 불리한 대외

경제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이런 불리한 대외 경제여건을 상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 개선 및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할 것을 밝혔다. 조속한 자립이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사회로 전환을 위해 핵심 인프라(Data-Network(5G)-AI) 및 3대 핵심산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차)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 정부예산에 대해 두 가지 방향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충분치 못하다는 시각이 있고, 일부에선 지나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후자는 재정건전성의 우려를 내포하는 관점이다. 우선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만으로도 재정이 취약해질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정 확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년의 재정이 실질적으로 매우 건축적으로 운영되어 국민경제 체계 안에서 정부 부문의 역할이 경기를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2019년 재정 기조도 매우 소극적인 수준의 확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예산안에서 제시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준은 2018년의 건축재정에서 비축된 재정 여력을 활용해 그해에 수행한 경기 수축적인 정부의 역할을 제자리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정도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외 경제여건과 경기침체 초입의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경우 오히려 재정수입이 증가해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 다만 재정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경제성장률 제고로
모두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 복지, 교육에 대한 지출을 위해
조세부담률 제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자면 정부가 8월 29일 제시한 2020년 예산안보다 훨씬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2020년 정부가 택한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관점의 비판을 의식하고 적절히 안배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흔히 하는 오해와 달리 재정건전성 유지와 적극적 재정정책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가 처한 저성장 환경에서 현재와 같이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세수입 증대와 국가부채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효율적인 공공투자는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정부의 잘 고안된 R&D에 대한 투자나 조세지원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아동복지 증대나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노동 공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경우 오히려 재정수입이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필요한 재원을 경제성장률 제고로 모두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 복지, 교육에 대한 지출을 위해 조세부담률 제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분야의 지출에는 양면적 재정확장 정책이 적절하고 단기적 경기대응을 위한 지출, 공공투자 지출은 일면적 재정확장이 더 나은 대안이다. 이자율이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재정적자가 정부부채 비율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므

로 재정적자, 즉 일면적 재정확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00~2018년에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명목성장률의 차이는 평균 2.2%포인트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평균 1.04%,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GDP 대비 평균 1.1%였다. 관리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재정적자를 적절한 수준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 보면 재정적자가 유리한 경제적 상황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정 건전성-적극 재정정책 충돌하지 않아

한편 양면적 재정확장에서 요구되는 조세수입 확보를 위해 세정개혁 및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조세수입의 확보는 세제개혁 이전에 조세감면의 간소화, 세무행정 개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이것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정개혁과 함께 자산소득,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소득공제제도 개편, 환경세 강화 등 공정한 과세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세입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세제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한 수요 창출을 통해 경제를 견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선제적 뉴딜정책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경기침체에 국민경제에 효율을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국내관광과 연계성이 높은 전국적인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새로운 지출 분야의 창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는 시기에는 노동시장이 뉴딜적 투자를 필요로 할 개연성도 높다.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노인을 위한 마을’ 기억 다시 꽃피우고 존엄 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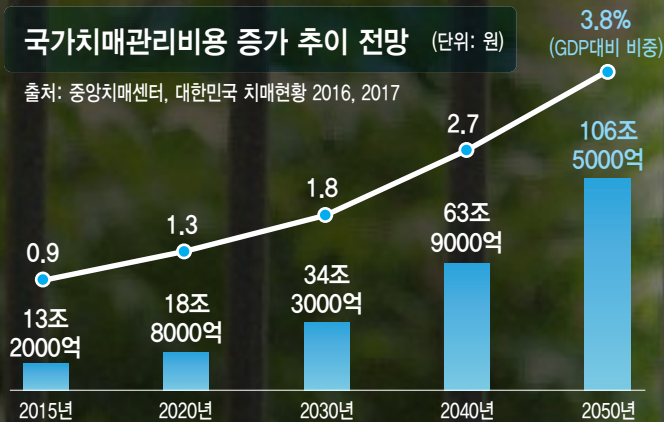
노인인구 및 치매인구 증가 추이 전망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국가치매관리비용 증가 추이 전망 (단위: 원)

출처: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6, 2017



72만 명. 2017년 기준 치매 환자 수다. 치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모두의 이야기가 됐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고, 국민 25가구 중 1가구가 치매 가족이다. 치매 환자의 가족은 하루 평균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환자를 돌본다. 치매는 오래도록 국가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다 뒤늦게 정책으로 발전했다.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의 치료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돌봄 관점으로 치매를 관리하는 방향을 담은 치매국가책임제가 2년을 맞은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중산동의 치매안심마을을 다녀왔다.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집으로 인도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하는 마을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에 부딪힌 선진국은 일찍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해왔다.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예방과 진단, 병원 연계를 담당한다면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서비스 관리망을 만든다. 2007년부터 12년 동안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영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서 센터의 역할과 치매에 대한 의학적 이야기를 들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현장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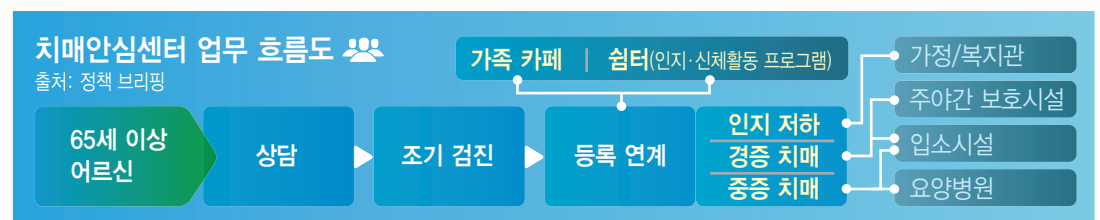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2017년 기준)의 13.8%를 차지한다. 고령 사회로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에 부딪힌 영국, 덴마크, 일본 등은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일찍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한 것이다. 과거 덴마크 역시 고령화로 인해 요양원이 급격히 늘고 대형화했지만 1987년 법안을 만들어 요양원 확산을 막고, 재택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했다. 일본 또한 늙고 병들어 치매에 걸리더라도 평범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지역 포괄 케어’가 이뤄진다. 실제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는 노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조사됐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지내고 싶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의 치료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돌봄 관점으로 치매를 관리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2008년 ‘치매와 전쟁’을 선언한 정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으로 ‘치매안심마을’ 제도를 발표했다. 기존의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이 단발성 효과에 그친 것에 반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치매 환자가 거주하던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마을이다.

살던 공간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정부는 올해부터 각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별로 치매안심마을 1곳 이상씩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최근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나서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기억이 꽃피는 마을’을 찾아갔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알츠하이머병 협회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 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약 한 달 앞둔 8월 26일 방문한 중산동행정복지센터 5층에서는 소고 치는 소리가 들렸다. 매주 월요





일 진행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중산 고고씽’이 진행 중이었다.

‘치매 간이 선별 검사(MMSE-K)를 받은 만 6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인지 저하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수업이다. 치매 예방 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이제껏 523명의 주민이 다녀갔다. 6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일산동구 전체 노인 인구율(17.7%)에 비해 중산동 노인 인구율(19.4%)은 유달리 높다. 노랫 소리가 나는 교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성화를 받치어 무엇 하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나나노 날리야 날리야 나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벌, 나비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칠판에 적힌 가사 가운데 특정 글자에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동그라미가 나올 때만 소고를 쳐야 하기 때문에 인지 활동이 겸해진 수업이다. 강사는 연신 어르신들을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진짜 잘하시네요. 동그라미 개수가 더 많은 노래로 이제 갈까요? ‘아빠의 청춘’ 노래 불러요.” 어르신 학생이 강사에게 농담을 던졌다. “선생님, 가사를 ‘엄마의 청춘’이라고 바꿔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엄마잖아요.” 여성이 대부분인 교실에서 웃음꽃이 번졌다. ‘아빠의 청춘’ 노래를 부른 뒤 강사는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르신들께 여쭙어볼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꽃피’ 때랑 외모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대로 맞아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마음은 다 그대로래

요. 한 분도 예외 없이 마음은 그대로래요.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이 부분에서 열심히 불러봐요.”

‘아빠의 청춘’ 노래가 끝나자 핸드벨의 일종인 톤차임이 어르신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고데기 아니에요?” “맞아요, 고데기.” 교실에서는 또다시 웃음이 터진다. 톤차임이 헤어 기구인 고데기처럼 생겼다는 농담이다. “톤차임은 분위기 있는 노래에 어울려요. 이제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노래 부를게요.” 각자 지급된 톤차임마다 다른 번호가 적혀 있다. 가사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본인이 가진 톤차임 번호에 맞춰 악기를 울려야 한다. 음악 수업이 끝나고 체육 수업이 이어졌다. 2시간의 ‘중산 고고씽’ 프로그램이 끝나자 어르신 학생들이 연신 “수업이 재밌다”며 교실을 빠져나왔다.

‘꼬까신’ 반경 벗어나면 보호자와 센터에 알람

고양시 중산동은 2018년 경기도 치매관리 사업 부문에서 최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지 1년 만의 성과였다.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치매에 익숙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진다. 2018년 10월 중산체육공원에서 지역 주민 4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돛자리 토크’가 개최됐고, 요양원과 연계해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인 ‘쌍쌍 징검다리’를 2018년 여섯 차례 진행했다. 집에서 치매 환자의 인지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유관 기관인 요양병원 직원이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재능 기부로 집



고양시 중산동은 2018년 경기도 치매관리 사업 부문에서 최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지 1년 만의 성과였다.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치매에 익숙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진다.

1 치매 예방 프로그램 시간에 참가자들이 노래 수업에 앞서 소고를 들고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2 참가자들이 강사의 안내에 따라 팀별로 탑을 쌓아올리고 있다. 3 울동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4 치매안심프렌즈 가게인 '헤븐 카페' 윤진호 사장이 프렌즈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 범수연 고양시 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 주무관

중주의력 훈련, 치매 예방 체조 등 교육도 47회 진행했다. 저소득층에는 기저귀, 손목형 배회 감지기 등을 지급했다. 또 다른 대표적 사업이 치매 환자 실종에 대비한 이른바 '꼬까신'이다. 신발 밑창에 위치 확인 시스템이 달려 있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앱을 통해 치매 환자의 '행동반경 안심존'을 설정할 수 있다. 반경을 벗어나면 보호자의 휴대전화와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에게 알람이 울린다. 한번은 센터에 알람이 울려서 담당자가 급히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다. 보호자가 환자와 함께 안심존을 벗어나 멀리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신발은 올해 11월 업그레이드해 보급될 예정이다.

“부정적 인식 바꾸는 게 가장 어려워”

“꼬까신은 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 사업으로, 무조건 특화사업은 치매안심마을 주민을 1순위로 지급해요. 배회 감지 칩을 밑창에 심었는데 신발이 일체형이다 보니 신발 선택에 제한이 있고 충전하는 어려움도 있어서요. 깔창에 칩을 심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발을 신어도 이 깔창을 깔면 되니

까 호환이 가능해요. 이제껏 50쪽을 나누었고 50쪽은 후반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초반이라 오류가 나서 애로 사항을 보완하는 과정이지만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좋아하세요. 100쪽에 한해 어려운 가정에 무료 보급하고 향후에는 유료화할 계획도 있습니다.”(범수연 고양시 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 주무관)

그러나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다. ‘치매 간이 선별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60세 이상 주민은 흔쾌히 ‘중산 고고쟁’ 같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나온다. 문제는 치매 간이 선별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시작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인지 강화 교실에 초대하지만 쉽게 응하지 않는다.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다.

“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 등에 출장 나가 치매 간이 선별 검사를 하기도 하고, 직접 치매안심센터에 검사받으러 오는 분도 계세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중산 고고씽' 수업은 노래로 흥겹다.

또 돛자리 토크, 씽씽 징검다리, 꼬까신, 네잎클로버 사업 등으로 예방과 치료를 연계한다.

은행, 카페 등 상가 10곳은 '치매안심프렌즈'로 치매로 배회하는 노인을 보호한다.

개선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치매에 관심 없는 분들을 관심 있게 바꾸기는 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죠. 인지강화 교실의 경우, 아직 치매가 오진 않았지만 인지 저하가 시작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오시라고 해도 잘 응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나오면 동네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는 얼굴이 있을까 봐 꺼려지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오는 분들도 있고 말 한마디 안 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교육을 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재미를 붙이기도 하세요.”

거동이 불편해 치매안심센터 등으로 나올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네잎클로버 사업’이다. 독거노인분들의 자택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인근 병원으로 연계하는 과정까지 돕는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주민 6명 가운데 1명이 60세가 넘는 중산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지나간 세월을 글로 쓰며 마음을 다잡는다. 이들이 쓴 글을 묶어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여름 <내 마음의 거울> 책자를 발간했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 목소리. 엄마, 괜찮아. 그래,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엄마, 몸은 괜찮아? 그래, 괜찮다. 엄마, 별일 없는 거죠? 그래, 즐겁게 잘 살고 있다. 옛 우리 엄마가 내게 해주신 말씀이었네. 아이들 걱정할까 봐 그랬음을. 우리 엄마 똥쟁이였네. 보고 싶다. 2019년 7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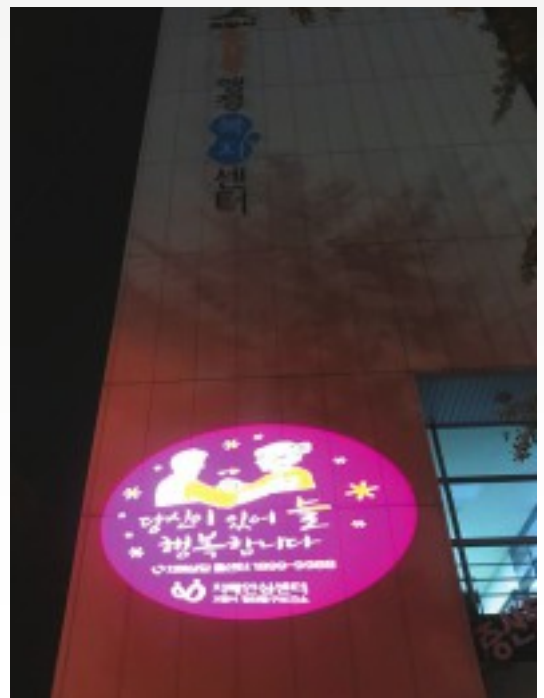
이 마을의 은행, 카페 등 상가 10곳은 ‘치매안심프렌즈’다. 일반 시민이 치매로 배회하는 노인을 발견하면 치매안심프렌즈 상가에 모시고 가고, 상가 주인이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하는 구조다. 중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자리한 ‘헤븐 카페’도 치매안심프렌즈 가게다. 중산공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카페를 찾아가니 사장인 윤진호(52) 씨가 반갑게 맞았다. 그

는 “부모님의 치매를 간호하느라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많은 시간을 써야 했던 카페 손님이 계셨다”고 말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치매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도 나이 들 수 있고 나의 부모님도. 그런데 치매안심프렌즈 현판을 가게에 다니까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치매 환자분이 지나가진 않는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에서 외국 사례를 담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치매 환자분들도 우리와 함께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치매가 없는 사람들도 환자를 이해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해요.”

밤이 되면 중산체육공원과 중산동행정복지센터 건물에 오색찬란한 빛이 들어오면서 문구와 로고가 새겨진다. ‘건강한 걸음 치매, 예방 한 걸음’ ‘당신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존엄은 남는 마을의 밤이다. ㉠

글 박유리 기자, 사진 박윤섭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치매안심마을 공원과 행복복지센터에는 밤마다 로고 라이트가 켜진다. | 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



이동영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장
터장 | 이동영

“문턱 낮추고 검사-예방-치료 연계”

“젊은 사람들이 치매 환자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 그 비용 등을 낮춘 만큼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 조기 검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1월 23일 서울 종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환자 가족, 대학생 등과 함께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은 김 여사는 센터에서 진행 중인 어르신 컴퓨터 교육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제가 65세가 돼서 치매 인지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 (결과를) 걱정했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 걱정할 만큼은 아닌 것

같다. 스스로 준비해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김 여사가 참여한 치매 파트너 교육은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이다. 치매 파트너의 경우 전문가가 일반인을 교육하는 데 반해 서울시가 2014년 시작한 ‘천만 시민 기억 프로젝트’는 일반 시민 중에서 리더를 양성하고, 양성된 리더가 또 다른 시민을 교육해 기억 친구를 길러내는 구조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 등을 시민에게 알리는 기억 친구는 12만여 명에

이른다.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5시간 심화 교육을 받으면 기억 친구 리더가 된다.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는 리더가 또 다른 기억 친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인 치매 인식 개선, 치매 서비스 관리망 등 치매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2006년 개소한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다.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산하에 25개 자치구마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있다.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의 중심에는 2007년부터 12년간 센터장을 맡아 온 이동영 서울대 교수가 있다. 서울대병원에 국내 최초의 치매클리닉이 개설되는 데 기여한 이 교수를 8월 9일 만나 인터뷰했다.

“정보 구축하는 일도 10여 년 동안 해”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의 활동과 성과는 어떤지요?

=센터가 하는 일은 5대 사업으로 구성 되는데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과 ‘조기 검진 사업’ 등이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 치료가 안 된다는 암담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치료비나 진단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잖아요. 병원을 안 찾으니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영상 검사 등 비싼 검사는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검사들은 무료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만약 발견이 되면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치료를 받게 연계해요. 또 고위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예방적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이를테면 신체 인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약을 먹고 인지 재활 등을 받으면 늦출 수 있거든요. 또 실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에요. 가족 교육, 지지 프로그램이 중요하죠.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입니다. 서울에 25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 많은 노인분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에 있는 다양한 단체를 적절히 연계해 치매 서비스 관리망을 만듭니다. 치매망을 잘 확립하면 비용적으로, 효과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합니다. 환자 개개인을 관리하는



“서울에 25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많은 노인분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에 있는 다양한 단체를 적절히 연계해서 치매 서비스 관리망을 만듭니다. 치매망을 잘 확립하면 비용적으로, 효과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데도 도움이 되지만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게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일을 1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는 젊은 치매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 중이다.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초로기 치매’(젊은 치매)는 점차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집계한 수치를 보면, 노인 기준인 65세보다 젊은 치매 환자가 2009년 1만 7772명에서 2018년 6만 3231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72만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환자 10명 가운데 약 1명이 젊은 치매인 셈이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 준고령자와 그 가족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서비스가 필요해졌다.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는 젊은 치매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관련 업무 중사

8월 6일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회의실에서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취업 규칙 회의가 진행됐다.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자, 환자와 가족을 위한 초로기 치매 가이드북을 제작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을 지원했다. 2018년 서울 강동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치매안심센터는 특화 사업으로 초로기 치매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맞춤형 1:1 초로기 치매 예방 교육, 방문형 치매 가족 교육 등을 이어갔다. 초로기 치매는 노인성 치매와는 달리 유전적 영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노년기 치매는 대부분 기억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데, 초로기 치매는 성격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감정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나빠지면서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뿐 아니라 참을성이 없어지거나 성급히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구분해야”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이 많은 가운데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선 방향은 어떤가요?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완치잖아요. 그 다음 좋은 치료는 일찍 발견해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병을 지연시키는 것인데 치매에 있어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약을 쓰지 않고 그냥 지켜본다고 가정해보죠. 처음에 증상이 가벼웠는데 8년 뒤를 추정하면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약을 쓰면 그럴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완전히 진행이 멈추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과 문제가 달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2007년부터 12년 동안 치매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영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서울대병원에 국내 최초의 치매클리닉이 개설되는 데 기여를 했다. 이 교수는 혈액검사로 치매 진행 정도를 예측하는 연구를 해 논문이 1월 21일 국제학술지 <브레인>에 실렸다.

8월 7일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교육실에서 치매관리사업 홍보 회의가 열렸다.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정확한 의미에서 치매는 무엇인가요?

=치매는 특정 한 가지 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배가 오래 아프고 속쓰림을 겪고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배 안을 들여다보면 위염, 위암, 위궤양 등 다양한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치매라는 것은 기억력을 비롯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런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하며 치료가 어렵고 심각한 병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뇌에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이지요.

-알츠하이머는 불량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베타아밀로이드와 관련이 있는데, 베타아밀로이드 관리를 사전에 할 수 있는지요?

=치매 중 70%가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생깁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뇌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뇌세포가 기능을 잃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치매가 베타아밀로이드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도 치매 현상처럼 보일 수 있죠. 베타아밀로이드가 왜 생기는지 다 알려져 있진 않아요. 유전적 영향도 있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험 요인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직접 쌓이게 하진 않지만,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들 가운데 밝혀진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소위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병변입니다. 그런 것

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그 외에 운동과 즐거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방법입니다.

“혈액검사 상용화되면 증상 전 발견”

이 교수는 혈액검사로 치매 진행 정도를 예측하는 연구개발도 진행했다.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졌다지만 이 물질이 머릿속에 쌓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대신 타우라는 단백질에 주목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 초기 진단에는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타우 단백질이 뇌에 축적돼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하지만 타우 단백질 축적 여부를 검사하는 데는 고가의 양전자 단층촬영(PET)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에 저렴하고

정확한 진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대 목인희 교수는 이 교수와 함께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타우 단백질의 혈중 농도를 분석한 결과, 혈액에서 타우 단백질 농도가 높을수록 뇌에 타우 단백질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연구 결과는 1월 21일 국제학술지 <브레인>에 실렸다.

-혈액을 통한 치매 조기 발견 연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저희가 (연구 중인) 혈액검사가 상용화된다면, 알츠하이머병이 치매로 드러나기 전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치매 증상이 보인 다음에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기 진단 의미는 치매이긴 한데 증상은 아니고 경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술은 증상이 안 보이는데 간단한 검사로 찾을 수 있으니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알츠하이머병으로 갈 사람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오래전부터 머리에 쌓이기 시작해요. 아직은 베타아밀로이드를 완벽히 없애는 약이 없지만 개발 중이죠. 그런 약이 나오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50세가 넘으면 피검사를 하고, 이 검사를 통해 약을 빨리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수는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치매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치매 조기 발견 연구 등 의학적인 해결 방안에도 힘을 쏟고 있다. ●

박유리 기자

시설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돌봄으로 관리

치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모두의 이야기가 됐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이고, 국민 25가구 중 1가구가 치매 가족이다. 노인을 위한 복지이자, 이제는 전 국민적인 노인 질환 걱정 부담을 덜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가 2년을 맞았다.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13.8%(708만 명)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0년 24.5%, 2050년 38.1%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2017년 전체 어르신의 10.2%(72만 명)인 치매 환자는 2030년 10%(127만 명), 2050년 15%(271만 명)로 전망된다. 급격한 치매 급증은 환자를 돌보는 문제로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일으킨다. 치매 환자의 가족은 하루 평균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의료비·검진비·요양비로 고통을 겪는다. 대한치매학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치매 환자 간병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보호자는 14%,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래도록 치매는 국가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다 뒤늦게 정책으로 발전했다. 2008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고 3년 뒤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치매관리법이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중앙치매센터가 탄생했고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 환자 진료, 치매 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2014년 치매 검사 제공 및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보험 5등급) 신설 등 치매에 대한 기본 지원 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불충분했다.

1:1 맞춤 서비스·무료 진단 검사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사항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내놔고 이 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됐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제인 케어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환자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대폭 완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연구 개발(R&D)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 치료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돌봄 관점에서 치매를 관리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2017년부터 치매 관리 서비스를 윈스 톱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확충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 절차를 밟은 환자와 가족들은 상담을 통해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선별 검사, 진단검사는 관할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고유 번호가 있는 어르신 인식표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기도 한다.

“광주의 이○○(49·여) 님은 어머니(이○○·91)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에 전념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둑 망상을 보이고 딸에게 폭언하는 등 성격이 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웃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소개받은 후 가족교실, 자조 모임에 참여해 치매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같은 환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경기도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 청와대



2017년부터 치매 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확충했다. 올해 안에 공립 요양병원 50곳에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하고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94곳 늘릴 계획이다.

가족들로부터 정서적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안심센터에서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로 연계해 개인 시간을 갖게 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18년 12월 공개한 우수 이용 사례다.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중앙치매센터가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치매안심센터는 88.7점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 다른 복지기관(81.3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본인 부담 10%로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도 낮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치매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최대 60%에서 10%로 줄면서 2018년 3만 2000명이 96억 원을 지원받았다.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 검사 및 치매의심환자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1월에는 경증 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체 기능에 관계없이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부여해 신체 기능 유지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치매 시설도 더욱 확충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립 요양병원 50곳에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하고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94곳 늘릴 계획이다.

치매 환자 실종 예방사업도 강화했다. 경찰청은 2018년 9월 치매 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KT와 공동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안내를 비롯한 실종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예방부터 관리까지... '치매안심센터'로 오세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다함께 노력하겠지만 보다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치매센터가 협력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국가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1:1 맞춤형 상담 및 검진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의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환자 돌봄 및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매환자 가족 지원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 등 치매와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치매예방교실 △치매조기검진 △호호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실종노인 발생예방 및 찾기 △치매환자가족상담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치매공공후견사업 등 어르신의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 치매환자,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하면 된다.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하고, 실종이 발생하면 등록 자료를 활용해 신속한 발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2012년 시행됐다. 사전 등록된 치매 환자의 경우 실종 후 발견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4분으로, 미등록자 발견 소요 시간(708분)보다 눈에 띄게 짧다.

치매는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치매국가책임제의 목표다. ●

박유리 기자

어르신 맞춰 주거부터 요양, 생활까지 지원

경기도 부천시 대산동에 사는 김 아무개(84) 씨는 1월 1일 저녁 집 앞 길가에서 미끄러져 대퇴골이 골절됐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요양 병원에 머물렀지만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 일상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독거 가구인 김 씨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집 문턱은 집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관절에 무리를 줄 정도로 높았다. 화장실에는 세면대 없이 수도꼭지만 있었다. 세수나 목욕을 하려면 늘 쪼그려 앉아야 했다. 자칫 잘못하다간 낙상 등 또 다른 사고가 날까 걱정이었다.

8월 28일 대산동 집에서 만난 김 씨는 편안해 보였

다. 얼마 전, 퇴원을 하고 보금자리로 돌아왔을 때 집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높은 문턱은 사라졌고, 화장실엔 세면기뿐 아니라 안전바, 센서 등이 설치돼 있었다.

가족처럼 챙겨주는 발길 이어져

가족처럼 마음을 다해 챙겨주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부천시 의료급여관리사, 부천시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건강은 어떤지,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챙겼다. 덕분에 마음도 편안해졌다. 김 씨는 “내가 살던 데 이렇게 다시 와서 지낼 수 있어 좋아요”라고



8월 28일 경기도 부천시 대산동 김 아무개 씨 집에서 김 씨(맨 왼쪽)와 부천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관리사 이순호 씨(가운데), 부천시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이동준 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김창연 기자



낙상해 수술한 독거노인 김 아무개 씨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 집 문턱 없애고 세면기·안전바·센서 등을
설치했다. 이후 전화하고 직접 방문도 해 보살핀다.
앞으로 영양식도 배달해드릴 계획이다.

말했다. “특히 세면대가 없어 혼자 씻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니 든든하고 고맙지요.” 김 씨는 부천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관리사 이순호 씨, 부천시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지역통합돌봄팀 이동준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김 씨가 이렇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복귀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 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 덕분이다. 이는 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

1 세면대 없이 수도꼭지만 있었던 이전 화장실 모습 |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2 8월 28일 김 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손을 닦으려 하고 있다.

| 김청연 기자

3 문턱 제거 이전 모습 |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4 문턱이 제거된 모습 | 김청연 기자

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6월부터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부천시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장기요양 등급외 A 대상자(연계모델), 65세 이상 노인(예방모델) 등 4개 모델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지역통합돌봄정책팀 손보영 팀장은 “선도사업이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특수성을 갖고 모형을 만들어보는 시도여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형이면 도시형, 농촌형이면 농촌형 등 각 특성에 맞춰, 어르신 개별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죠. 선도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춤형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 사업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전담 조직 꾸리고 부천형 모델 만들어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모델에 속하는 김 씨 측에 선도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건 의료급여수급자를 관리하던 부천시 의료급여관리사 이순호 씨였다. 이 씨는 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이던 김 씨를 알게 되면서 선도사업을 통해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전하고, 김 씨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시범사업이 있으니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맥을 방문했는데 어르신이 지내시기엔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 여러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케어 플랜을 짜서 동으로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동 지역통합돌봄팀, 종합사회복지관, 100세 건강실 등에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웠고요.”

부천시 선도사업은 이렇게 대상자인 입원 환자들의 구체적인 수요·욕구를 파악하고 퇴원 계획을 수립하는 ‘케어 플랜’, 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6월부터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부천시는 먼저 케어 플랜을 짜고 지원 계획을 세워 지역 포괄·재가·주거 등 자원 연계 등을 실시한다.

세우는 '접수 및 동 케어 회의'에 이어 연계·지역 포괄·재가·주거 등 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는 '지원 및 사례관리', 대상자 추적관리 및 사업 전반 평가 (전문기관 의뢰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김 씨의 케어 플랜에는 월 1회 동네 의원 방문(고혈압), 골절 수술 후 비타민D 약 처방(3개월에 1회 병원 방문), 보건소 방문간호 연계 등도 포함돼 있다.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자는데 취지인 만큼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통해 진행한 문턱 제거, 세면기와 안전바 설치, 화장실 센서 등과 부엌 LED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효자손 케어 서비스) 역시 김 씨의 건강상태, 상황 등에 맞춰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부천시는 선도사업을 시작하며 시 본청과 10개 광역동에 통합돌봄 전담 조직도 꾸렸다. 행정 단위 기준을 하는 36개 동을 돌봄 서비스 제공 단위를 기준으로 10개 광역동으로 개편하고, 이를 10개 종합사회복지관, 14개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100세 건강실과 연결해 행정·복지·건강이 촘촘히 연계된 부천형 통합돌봄 모형을 제시하는 중이다.

지역 5개 의약단체 가정 방문 의료

김 씨를 정기적으로 살피고 있는 부천시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이동준 씨는 "2인 1조로 어르신 상황을 살피는데, 전화드리는 건 기본이고 지역사회 가까이 있는 만큼 직접 찾아가 보살펴드리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김 씨는 부천시,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측에 고마움을 드러내며 "앞으로 지원받을 더 많은 선도사업을 생각하면 불편한 몸이지만 얼마든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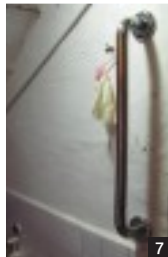
앞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AI 스피커, 누워서도 불을 끄고 켤 수 있는 IoT 스위치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홈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LG



5



6



7

5 김 씨가 안전바를 잡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6·7 화장실 안에 설치된 안전바 | 김청연 기자

유플러스가 협약해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250가구에 AI 스피커, IoT 기기(가스 잠금, 스위치 등)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지역자활센터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가정에 영양식을 배달해 어르신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5개 의약단체(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의료, 한방, 구강, 약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퇴원 환자 방문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천시 측은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기 원하는 어르신의 퇴원을 돕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급 진입을 방지, 요양원·병원 등 입소를 지연해 지역 어르신 모두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청연 기자

2026년 초고령사회 앞두고 최저생계 등 삶의 질 높여

2026년 우리나라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김 씨에게 제공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우 필요한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2018년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 및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를 제시했고, 올해 6월부터는 16개 시군구에서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돌봄 보장’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소득 보장’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이렇게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복지 정책의 출발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4%, 교육급여 50% 등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등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정부는 2019년 초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 의무자로 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도 했다.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생계 3조 7000억 원, 주거 1조 6000억 원, 의료 6조 4000억 원, 교육 1000억 원, 자활 4000억 원, 해산·장제 338억 원 등 약 12조 3000억 원(국비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은 이들은 생계급여 123만 명, 의료급여 140만 명, 주거급여 153만 명, 교육급여 31만 명 등 2018년 말 기준으로 174만 명에 달한다.

눈도 입도 마음도 즐겁게 '태극 패션' 발길 복적

1

울릉도가 뜬다. 아니, 이미 뗏다. 관광과 힐링, 미식의 집합 공간에 '독도 효과'라는 애국심이 더해지며 울릉도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일본과 외교적·경제적 마찰이 심해지면서 독도와 울릉도를 다녀오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태극기 수건을 목에 두르고 울릉도를 누비는 태극 관광 패션은 이제 익숙하다.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KTX는 울릉도 여객선이 출발하는 강릉을 더욱 쉽게 접근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3월 울릉도를 일주하는 도로가 처음 개통되며 울릉도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울릉도에 공항도 건설 중이다. 울릉 관광은 이제 서울에서 반나절이면 가능하게 됐다. 실제 올 들어 울릉도 방문객은 2018년보다 30%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대였던 2013년의 41만 5000명을 뛰어넘어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8월 17일부터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찾았다. 광복절이 막 지났지만 울릉도 가는 여객선은 진지하면서도 진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맑은 바다 날씨가 독도 집안에 대한 희망으로 들뜨기도 했다.



1 천부항의 일몰은 울릉도에서 손꼽히는 절경이다. 천부항 해변 풀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지는 해를 바라보며 물놀이하고 있다.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KTX는 울릉도 여객선이 출발하는 강릉으로 쉽게 접근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3월 울릉도를 일주하는 도로가 처음 개통되며 울릉도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울릉도에 공항도 건설되고 있다.

울릉 관광은 이제 서울에서 만나절이면 가능하게 됐다.

관음도 연륙교 아래로 바다가 아찔

8월 17일 새벽 6시 1분, 서울역에서 강릉행 KTX는 정확하게 정시에 출발했다. 2시간 3분 만에 서울과는 공기가 전혀 다른 강릉에 도착했다. 강릉항에서 9시 20분에 출발하는 울릉행 여객선을 타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출발 30분 전에 멀미약을 마신다. 다행히 동해 바다가 잠잠하다. 뱃멀미의 고통에서 해방된 채 3시간 만에 울릉도 저동항에 도착했다. 허기진다. 저동항 근처의 식당부터 찾았다. 식당은 많으나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기가 어렵다.

성수기라 그런지 혼밥 손님을 받지 않는다. 2인 이상이어야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고 한다. 문득 몇 년 전 따개비밥을 맛있게 먹은 뒷골목 식당이 생각났다. 허름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인 할머니가 반긴다. 정성이 가득 담긴 따개비밥으로 위장을 호사시켰다. 6년째 식당을 한다는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던 다른 할머니가 숙소는 정했느냐고 묻는다.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하니 정갈한 민박집을 소개해준다고 따라나서라고 한다.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 바로 뒤에 민박을 정하고 일주도로 관광





2



3

2 저동항 방파제에서 본 울릉도 동해바다의 일출. 밤새 오징어를 잡은 배가 저동항을 향해 들어오고 있다. 3 울릉도는 3월 일주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며 육지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해안가 도로에서 본 삼선암

에 나섰다. 일주도로가 생기면서 2시간 간격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도는 일주버스가 생겼다. 버스에 올라타니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묻는다.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관음도에 갑니다.”

저동항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인 관음도까지 가는 도로는 일주도로 건설에서 가장 늦게 완공된 난공사 구간. 울릉도 섬 일주도로는 1963년에 울릉도 종합개발계획으로 시작해 1976년 첫 삽을 떴다. 2001년도 9월에 내수전~섬목 구간 4.75km를 제외한 39.8km만 연결됐다. 미개설 구간 공사를 위해 2008년 11월 국비 지원을 받으며 연결 공사를 시작해 입안 56년 만인 2019년 3월 29일 개통식을 했다.

관음도는 섬목과 연륙교로 연결된 무인도. 길이 140m, 높이 37m의 연륙교는 7년 전 만들어져, 다리 아래의 파도치는 바다가 아찔하게 보인다. 섬 둘레가 약 800m로 쉽게 한 바퀴 돌 수 있다. 멀리 죽도가 보이고 동백나무, 참억새, 부지깽이나물 등이 자생하는 야생식물의 천국이다. 울릉도 3대 절경 중 하나로 꼽힌다.

한 손에 작은 태극기를 들고 정겹게 연륙교를 건너는 두 명의 젊은 여성들과 같이 걸었다. 서울의 간호대학 4년생인 둘은 졸업을 앞두고 울릉도 여행을 왔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빠졌어요. 문득 울릉도와 독도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훌쩍 떠났죠.” 둘은 쉽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망망한 동해 바다를 즐긴다. 파갑게 내리쬐는 한여름의 태양도 그들에게겐 소중한 젊은 날의 추억일 뿐이다.

나리분지 원시림 숲길 따라 터벅터벅

한 시간가량 관음도 산책을 마치고 순환버스를 기다리며 호박식혜를 마신다. 울릉도 특산물이라고 한다. 시원하고 달달하다. 마침 봉고차를 몰고 육지 손님을 맞는 울릉도 주민이 빈자리가 있다며 타라고 한다. 인심이 좋다. 다음 여정은 천부항. 해중전망대가 있다. 수심 6m의 지하에서 바닷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바다와 접해 있는 수영장에서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자녀들의 물놀이를 지켜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은 일몰을 보기에 적합한 곳. 일몰 시간인 오후 7시 1분까지는 두 시간이 남았다. 버스를 타고 나리분지로 향한다. 성인봉(984m)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자리한 나리분지는 면적 1.5~2.0km², 동서 길이 약 1.5km, 남북 길이 약 2km의 분지. 칼데라 화구가 함몰해 형성된 화구원이다. 개척 당시 울릉도의 특유한 자연조건에 맞춰 지은 가옥 구조인 너와지붕을 한 전통가옥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원시림을 그대로 간직한 숲길을 천천히 걸어

독도행 여객선은 두 시간 항해 끝에 독도에 다가갔다. 날씨는 맑았지만 파도가 심해 끝내 접안에 실패했다. 배에서 독도를 보는 것으로 대신하며 크게 실망한다. 하지만 ‘독도 사랑’ 회원 50여 명 등 다들 태극기를 흔들며 동해 끝의 외로운 섬에 대해 애정을 표시한다.

본다. 저절로 힐링이 되고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

다시 버스를 타고 천부항에 오니 서쪽 바다로 해가 진다. 오후 7시. 멀리 삼선암과 코끼리 바위 등을 배경으로 숨 막히는 저녁노을 풍경이 바다 위에 펼쳐진다. 구름이 약간 가리긴 했지만 동해의 일몰을 감상하기에 충분했다. 해가 저도 바닷가 수영장에서는 개구쟁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저동행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다. 몸이 처진다.

대풍감 해안도로는 한국 10대 비경

간단히 저녁을 먹고 더위와 새벽부터 이어진 긴 거리의 여행으로 지친 몸을 누인다. 새벽 1시에 알람을 설정한다. 울릉도의 오징어 배 작업을 보고 싶어서였다. 알람 소리에 일어나 카메라와 삼각대를 챙겨 서둘러 저동항 방파제로 향한다. 바람이 시원하다. 먼 바다 위 오징어잡이 배에서 비추는 환한 전구 불빛은 오징어들을 마구 불러들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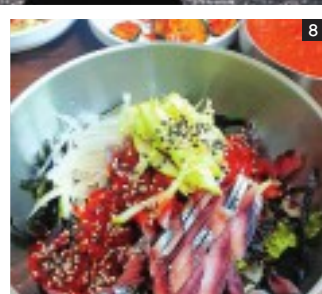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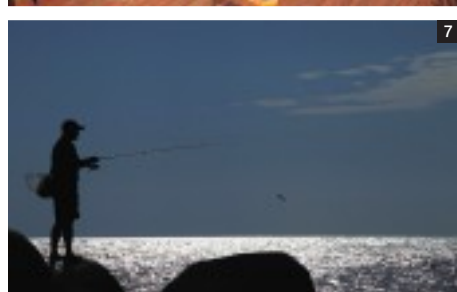
저동항으로 오징어배 한 척이 들어온다. 새벽 2시. 70대 노인 어부는 모두 세 박스의 오징어를 부둣가에서 기다리던 부인에게 건넨다. 할머니는 칼로 능숙하게 오징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분리한다. 배 정비를 마친 할아버지도 곧바로 할머니 옆에 쏙그리고 앉아 오징어 해체 작업에 합류한다. 내장을 비운 오징어는 줄줄이 가늘고 긴 대나무 막대에 꿰여 해풍에 건조된다. “언제부터 오징어를 잡으셨나요?” “젊을 때부터 계속이야. 두 아이 시집 장가 다 보냈지.”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허허롭다. 얼마나 많은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웃음일까?

오징어 해체 작업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숙소로 귀환했다. 눈꺼풀이 무겁다.

다음 날 오전에는 독도행 여객선을 탔다. 이미 나흘 동안 비바람으로 독도 접안이 불가능했다. 이날은 날씨가 매우 맑았다. 독도행 여객선은 두 시간 항해 끝에 독도에 다가갔다. 그러나 스피커를 타고 나온 선장의 안내는 모두를 불안케 했다. “부두의 너울성 파도가 심해 접안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에는 독도 경비대원들이 거수경례를 하며 승객들을 기다린다. 몇 차례 접안을 시도했으나 실패. 접안을 포기하고 배에서 독도를 보는 것으

4 울릉도에서 배로 15분 거리에 있는 죽도에는 단 한 가족이 산다. 죽도에서 더덕을 키우는 김유곤(50) 씨와 4년 전에 결혼한 이윤정(44) 씨가 아들과 함께 집 정원에서 포즈를 잡았다. 4월부터 11월까지 죽도에서 살고 겨울엔 포항에서 지낸다. 5 저동항에서 오징어 손질을 하는 어부 부부. 새벽 2시인데 정경계 이야기를 나누며 작업을 했다. 6 죽도에서 멀리 관음도를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7 학포 바닷가에서 한 낚시꾼이 릴낚시를 하고 있다. 8 울릉도에 가면 꼭 먹어야 할 따개비밥(왼쪽)과 콩치물회





9 파도가 높아 접안을 못한 독도 관광객들이 독도를 배경으로 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 대신한다는 안내에 모두들 크게 실망한다. 그러나 서둘러 배 위로 올라간다. 다들 태극기를 흔들며 동해 끝 외로운 섬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다. 목말을 태운 어린아이와 독도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아버지는 표정을 애써 밝게 한다. 전국에서 모인 인터넷 카페 ‘독도사랑’ 회원 50여 명은 아쉬움 속에 독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 분위기가 숙연하기도 하다.

“독도 보려고 뱃멀미를 참아가며 왔는데 독도 땅을 밟지도 못하다니...” 대구에서 온 70대 할머니는 손에 든 소형 태극기를 하염없이 흔든다.

독도의 잔상을 깊이 새긴 채 승객들은 자리에 와 앉는다. 그나마 날씨가 좋아 선명하게 본 것에 만족하는 느낌이다. 독도에 접안할 수 있는 날은 1년에 150일 정도.

저동항에 돌아와 택시를 대절해 일주도로를 한 바퀴 돌아본다. 가수 이장희 씨가 울릉도에 자리 잡고 기념관과 콘서트홀을 지은 ‘울릉천국’의 정원에서는 연인들이 정겹게 사진을 찍는다.

울릉도 서북쪽 끝의 대풍감 해안도로는 한국 10대 비경으로 꼽힌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 망망대해와 파도, 절벽의 어우러짐에 잠시 빠져본다.

일몰은 천부항, 일출은 저동항

서쪽과 남쪽 해안도로를 달리면 도동항에 도착한다. 이미 해가 진다. 도동항과 저동항 사이의 행남 해안도로를 걷다가 보면 바다 절벽을 배경으로 횃집이 나타난다. 7080 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커다란 자연산 홍합과 각종 신선한 횃감이 소주잔과 어우러져 분위기를 들뜨게 한다.

울릉도에 오면 동해 일출도 꼭 봐야 한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뜨는 해다. 19일 일출 예정 시간은 오전 5시 35분. 일찍 일어나 저동항 방파제로 갔다. 다행히 구름이 별로 없다. 장엄하게 뜨는 해의 붉은빛이 바다를 물들인다. 밤새 오징어를 잡은 배가 붉은빛의 바다를 가르며 항구로 들어온다. 눈이 시리다. ㉠

글·사진 이길우 기자

독도 가는 법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섬으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정부 소유의 국유지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다.

독도를 가기 위해선 반드시 울릉도를 거쳐야 한다. 현재 울릉도를 가는 방법은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다. 울릉도로 들어갈 수 있는 항구는 경북 포항항과 후포항, 강원도 묵호항과 강릉항 4곳이다. 울릉도에 도착하면 저동항, 도동항, 사동항 중 1곳에서 배를 타고 90분 정도 이동하면 독도에 도착한다.

▶ **미리 확인! 독도 배편** 울릉도에서 독도로 향하는 뱃길은 왕복 5만 원대이며 주중 하루 평균 3회, 주말 6회 정도 운영된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운항이 취소되거나 섬 주변을 도는 일정으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일정과 날씨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 **독도 여행, 언제가 좋을까** 독도는 주변 물살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 확인이 필수다. 실제 1년 중 입도가 가능한 날은 평균적으로 150일에 불과하다. 바람이 강하거나 파도가 높은 경우에는 입도가 어렵기 때문에 선회 관광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6~10월까지가 여행의 최적기라고 한다.

▶ **여행 전 알아두세요** 독도에 들어가려면 사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입도 1회에 470명으로 한정돼 있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행사, 집회, 취재 등 특수 목적 방문일 경우 신청서 등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머무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제한돼 있다. 뱃멀미가 심하다면 반드시 멀미약을 챙겨가는 것이 좋고, 신분증이 없으면 탑승이 거부된다.

울릉도행 배 타는 곳 (소요 시간: 울릉도 사동항 기준)

- 강릉항 여객선터미널(강원 강릉시 창해로14번길 51-26)_약 2시간 30분
- 묵호항 여객선터미널(동해시 일출로 22)_약 3시간
- 포항항 여객선터미널(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_약 2시간 30분
- 후포항 여객선터미널(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계로 236-14)_약 2시간 30분

독도 운항시간

- 돌핀해운(054-791-8112, www.dolp.co.kr)_왕복 4시간 10분
- 씨스포빌(1577-8665, www.seaspoovill.co.kr)_씨스타1~3호_왕복 3시간 30분
- 대저해운(1899-8114, www.daezer.com)_엘도라도호_왕복 4시간
- JH페리(1644-9605, www.jhferry.com)_씨플라워호_왕복 3시간 50분

※ 상세 정보: ‘울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고(www.ulleung.go.kr/tour)

5m 바닷속 대형 태극기 펼치며 빅찬 감격

1 프리다이빙 회원들이 광복절을 기념해 울릉도 바다에 들어가 대형 태극기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 손해원(앞줄 왼쪽) 씨와 프리다이빙 강사, 회원들이 울릉 바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손해원 씨

자유롭다. 중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껏 바닷속을 헤집게 만든다. 심연의 고요함을 온몸으로 느끼다 보면 어느새 숨이 막힌다.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한다. 허파와 심장 등 인체 내부 기관이 비명을 지른다. 숨을 참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갈망일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도전일까?

손해원(35) 씨는 프리다이빙 강사다. 메이크업 전문가로 일하면서 취미로 바다와 친해졌다. 2년 전부터는 프리다이빙 강사(하고 프리다이빙 클럽)로 나섰다. 프리다이빙은 산소탱크 없이 숨을 참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스포츠다. 길게는 5분에서 10분까지 숨을 참으며 잠수한다. 매년 국내외 바다를 찾아다녔다. 올해는 특별했다. 동호인들과 함께 울릉도를 찾은 것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일본에 대한 의식을 재정립하고 나라 사랑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함께한 6명의 제자 겸 동호인들의 뜻이 쉽게 모아졌다. 광복절을 맞아 울릉도 앞바다 깊이 들어가 태극기를 휘날리고,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준비물은 대형 태극기. 가로 1m80, 세로 1m20의 태극기는 바닷물에 들어가면 매우 무거워진다. 몸에 감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8월 18일 울릉도 서쪽 학포항. 바닷물이 고요해 프리다이빙하는 이들에게는 손꼽히는 장소다. 뷰티 크리에이터인 막내 이승욱(27) 씨는 프리다이빙 신참으로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최진강(38·연구원) 씨가 고이 접은 태극기를 펼쳐 보인다. 강한

태양빛 아래 태극의 신비로움이 푸른 바닷물을 배경으로 더욱 돋보인다. 이선민(30·경호원), 이정호(37·사업) 씨도 슈트를 입고 입수한다.

태극기의 한쪽을 잡고 바다에 뜬다. 소금기 잔뜩 머금은 동해 바닷물을 순식간에 흡수한 태극기는 살포시 가라앉는다. 깊이 숨을 들이켜고 자맥질을 시작한다.

몸의 각종 기관은 수압에 따라 최적화하기 시작한다. 심장은 박동을 줄이면서 조심스럽게 혈액을 뿜어낸다. 쪼그라지는 허파는 들이쉬는 숨 속의 산소 양을 체크하면서 최대한 조금씩 소비한다. 투명한 울릉 바다는 아름다운 수초와 투박한 용암 덩어리가 조화를 이루며 인간을 유혹한다. 5m 내려가 태극기를 펼쳤다. 바닷물 속에서도 태극기의 태극은 그 신비로움을 더한다. 갑자기 울컥한다. 가슴 깊이 가라앉았던 애국심이 마치 기포가 표면 위로 올라가듯, 의식의 한복판에 자리 잡는다.

“NO 재팬의 강한 함성을 바닷속에서도 지르고 싶었어요. 비록 소리를 지르진 못했지만 바닷속에 펼쳐진 태극기를 보면서 후련했어요.”(이승욱)

“대마도 여행도 취소하고 울릉도에 왔어요. 다음엔 더 큰 태극기를 펼쳐보고 싶어요.”(최진강)

울릉도 프리다이빙은 손 씨에게 그 어느 해 바다보다 정겹게 다가왔다. 7

이길우 기자



나리분지
숲길



천부항
해중전망대



울릉천국



대풍감
해안 절경



사자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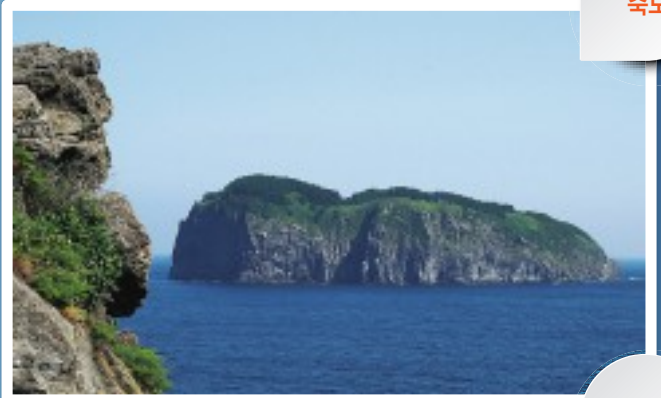
봉래폭포



가자! 울릉도 즐기기



관음도



죽도



행남해안 산책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 87.4km

독도 가는 방향



도동항



저동항

‘취향저격’ 가을 여행, 여기 어때!

이른 추석 연휴가 겹친 9월은 초가을 나들이를 떠나기에 더없이 좋은 달이다. 때마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2019 가을 여행주간’(9월 12~29일)을 진행한다. 슬로건은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이다. 국민 각자의 취향이 반영된 국내 여행으로 일상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

가을 여행주간에는 JTBC 인기 예능 <캠핑클럽>과 연계 행사를 진행한다. 출연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캠핑클럽> 촬영 시 포착된 아름다운 국내 전경 사진을 전시하는 <캠핑클럽 사진전>이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야외광장과 2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야외광장에는 촬영용 캠핑차를 활용한 사진 찍는 곳이 설치되고 2층에는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된다.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준비하는 연계 혜택은 물론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축제와 행사 정보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야놀자’ ‘신라스테이’ ‘카모아’ 등이 참여해 기획상품 운영과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부문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와 20여 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다. 추석 연휴에는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무료 개방과 국립중앙과학관 할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가위 행사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 여행주간 홍보물을 제보하는 ‘찾아라 여행주간’, 국내 여행 참여 사진 인증 ‘떠나자 여행주간’ 등 이벤트와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유휴어택’을 실시한다. ●

글 강민진 기자, 사진 한국관광공사

취향저격 마을여행 20선

2019년 가을 여행주간의 추천 여행은 ‘마을’이다. 봄에 이어 가을 여행주간에서도 김태영 로케이션 전문 디렉터가 추천한 ‘취향저격 마을여행 2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① 혼자서 떠나기 좋은 마을여행지

부산 영도 강강이예술마을

근대 조선산업 발상지였던 곳이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서자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했다. 녹슨 배의 표면을 벗겨내는 망치질 소리가 ‘강강’하다고 해서 강강이예술마을이란 이름이 붙었다.



제주 화북 곤을마을

4·3사건 때 초토화한 바닷가 마을이다. 지금은 집터만 남아 있지만 제주 올레 18코스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4·3 집터, 4·3사건 유적지 조감도, 4·3 평화공원, 알뜨르 비행장 등이 볼거리다.



가을 여행주간에는 JTBC 인기 예능 <캠핑클럽>과 연계 행사를 진행한다. 출연진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캠핑클럽> 촬영 시 포착된 아름다운 국내 전경 사진을 전시하는 <캠핑클럽 사진전>이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야외광장과 2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강원 봉평 효석문화마을

소설 <메밀꽃 필 무렵> 배경지다. 특히 9월이면 메밀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올해 메밀꽃 축제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충남 논산 강경근대문화마을

근대 문화유산이 가득하며, 최근에는 강경 젓갈로 유명하다. (구)한일은행 강경지점, (구)노동조합, 연수당 간재한약방 등이 있다.



전남 담양 삼지내마을

3.6km 돌담길을 간직하고 있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마을이다. 고택마을 탐방, 3.6km 돌담길, 소쇄원,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길이 유명하다.

2

둘(친구, 커플)이 떠나기 좋은 마을여행지

전북 완주 삼례책마을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 사이에 지어진 양곡 창고와 비료 창고를 개조해 책 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삼례 문화예술촌으로 변모했다. 책 박물관뿐 아니라 비비정(정자), 비비정 예술열차, 비비낙안 카페, 대아수목원 등 즐길 거리도 많다.



대구 달성 마비정 벽화마을

말에 관한 슬픈 전설이 있으며, 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통해 1960~70년대 농촌 풍경 벽화로 꾸며졌다. 벽화, 연리지 사랑나무, 옷나무, 남평 문씨 본리세거지 등이 볼거리다.



경기 이천 도자기마을

이천시 신둔면 전체에 걸쳐 있으며 700명이 넘는 도예가가 300여 개 요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사기막골 도예촌, 도자기 전시관이 볼거리다.



충남 당진 할매마을

본래 백석올미마을이었다. 최근 평균 나이 75세 할머니들이 '행복한 반란'(전통 먹거리 체험 등)을 진행하면서 마을이 시골벽책해졌다.



경남 함안 강주해바라기마을

백만 송이 해바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과거 주변의 공장들로 주거 환경이 나빠지자 주민들이 힘을 합쳐 8만㎡에 해바라기를 심었다.

3 가족과 떠나기 좋은 마을여행지

강원 태백 철암탄광역사촌

옛 탄광촌 주거시설을 문화 공간으로 재생·보존해 잊혀가는 석탄산업의 역사와 광부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 철암탄광역사촌 전시관, 철암역 선탄장, 태백 파독광부 기념관, 태백 체험공원,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바람의 언덕 등을 방문한다.



인천 강화 화문석마을

‘꽃뿔자리’ 화문석을 전통 방식 그대로 고수하며 가내수공업으로 만들고 있는 전통문화 체험마을이다. 화문석 장인의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충북 음성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조상들의 해학과 풍자, 삶의 애환이 담긴 품바와 폐품을 재활용해 만든 정크아트를 관람할 수 있다. 원남테마공원, 감곡 매괴성당, 백야자원휴양림, 한독박물관 소화제 만들기 체험 등을 추천한다.



전남 신안 증도마을

국내 최대 소금 생산지로 ‘한국의 우유니’라고 불리며, 갯벌과 염전 등의 습지가 있어 국제적으로 랍사르 습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태평염전, 소금창고, 소금박물관 등이 있다.



경북 성주 한개마을

고즈넉한 전통 한옥과 돌담길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마을이다. ‘한개’는 큰 개울, 큰 나무라는 뜻의 순우리말. 성산 이씨 집성촌으로 600여년의 고가와 담장을 옛 모습 그대로 간직했다.



4 누구나 떠나기 좋은 마을여행지

전북 남원 혼불문학마을

대하소설 〈혼불〉 배경지이자 작가 최명희 선생의 고향이다. 소설 무대인 종갓집 ‘노봉서원’ 등 조선 후기 건축양식도 남아 있다. 구 서도역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다. 남원은 물론 춘향전과 광한루가 가장 유명하다.



경기 포천 막걸리마을

우리나라 막걸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과 시음장, 전통 방식 그대로 발효시키는 500여 개 옹기를 볼 수 있다. 산사원 전통술박물관, 산사정원 등이 볼거리다.



충남 보령 청라은행마을

3000그루가 넘는 국내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로 신경섭 전통가옥과 함께 가을의 절경을 느낄 수 있는 사진 촬영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2018년 단풍 절정기는 10월 말이었다.



충북 진천 공예마을

조상의 얼이 깃든 전통공예 산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공예품을 개발해 공예 기술 발전을 이루고자 조성됐다. 마차박물관 체험마을, 진천농다리 등이 유명하다.



경남 함양 개평마을

500년 역사를 이어오는 솔송주와 450년 넘는 역사를 지닌 한옥 60여 채가 보존되어 있다. 일두고택, 오담고택, 솔송주 문화관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대표 프로그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여행주간마다 각 지역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가을 여행주간에는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대전, 강원 등 지역에서 대표 프로그램 20개를 마련했다.



부산

산복도로의 주요 역사 거점지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 '부산 산복도로 탐험기'를 실시한다. 여행자들은 산복도로를 끼고 있는 감천문화마을, 비석문화마을, 초량 이바구길을 연계해 돌아보면서 체험형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60회에 걸쳐 8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다.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부산 가을바다 체험기'도 선보인다. 24회에 걸쳐 600명이 참여한다. 참가비 1인당 1만 5000~3만 5000원. 문의 1566-3299



세종

가족을 겨냥한 이벤트 현장 행사를 기획했다. 합강 오토캠핑장에서는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동회, 요리 경연 대회, 천체 관측 체험 등 행사로 구성된 '가을 별 따라 캠핑하GO'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가구당 4만 원. 세종시 대표 명소인 호수공원에서 국악 공연과 거리 노래방 등 이벤트를 펼치는 '가을 길 따라 세종찍GO'도 실시한다.

문의 042-254-8048



충남

백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충남 천년백제길'을 선보인다. 240명을 대상으로 3개 코스를 8회에 걸쳐 진행한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역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태안의 자연과 흥성의 역사를 결합한 '충남천년탐사길' 프로그램도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당일 2만 원, 1박 2일 5만 원.

문의 02-458-3315



경남

남해와 통영의 바다 여행을 선보인다. 남해에서는 어촌마을의 고유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웰니스 여행 프로그램 '썩썩 체험, 남해 공감 여행'을 240명을 모아 8회에 걸쳐 진행한다. 통영의 자연과 체험 콘텐츠를 연결한 '남쪽 빛 섬과 바다! 통영 힐링여행'은 5회에 걸쳐 200명이 대상이다. 참가비는 각 1만 5000~3만 원. 문의 02-515-2048



광주

광주 출신 예술인과 광주의 명소를 둘러보는 '광주 예술인과 여행'을 20회에 걸쳐 실시한다. 참가비는 1만 원. 예술여행 거점 중심의 체류형 숙소인 아트스테이 숙박을 결합한 '아트스테이 IN 광주' 프로그램도 16회 진행한다. 참가비 3만 원.

문의 070-4239-5040

tip

여행주간 100배 즐기기

여행주간에 위법·부당 행위, 불친절 행위 등 관광 불편 사항이 생기는 경우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는 누리집, 전자우편, 전화(1330), 팩스, 엽서 등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관광불편신고센터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가을 여행주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최신 소식은 여행주간 공식 누리집(travelweek.visitkorea.or.kr)과 누리 소통망인 페이스북(travelweek.kto), 인스타그램(travelweek.kt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단 허리 따라 통일 한 걸음 생명 한 걸음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들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중략) 그에 앞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전방 GP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월 30일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분단의 아픔을 담은 비무장지대는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자연의 위대한 생명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울러 역사와 자연, 평화가 공존하는 비무장지대를 둘러보는

DMZ 평화의 길(이하 평화의 길) 체험이 인기를 끈다.

열흘 새 주인 24번 바뀐 격전의 백마고지 감개무량

평화와 안보의 현주소를 생생하고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는 고성(동부), 철원(중부), 파주(서부) 3개 지역에서 시작한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백마고지 전적지, 유해발굴 지역 등 남북전쟁의 아픔이 깃든 분단의 땅을 돌아보는 철원 코스는 15.0km로 3시간이 소요된다. 화산암이 분출해 이뤄진 용암대지 철원평야 사이로 한탄강이 흐른다.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A통문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A통문부터 화살머리고지가 보이는 B통문까지는 DMZ 남측 철책을 따라 3.5km를 걸어서 이동하는 경로다. 그곳에서부터 비상주 GP까지



1 구선봉 및 해금강(DMZ) 2 화살머리고지 정상 GP 3 'DMZ 평화의 길' 철원 코스

차량으로 이동한다.

“4월 27일 고성 구간이 최초로 개방됐고,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이 개방됐습니다. 그리고 철책선 안으로 들어가서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는 비상주 초소가 국민에게 개방되는 것은 바로 이곳 철원이 최초입니다. DMZ의 특성상 방문객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한 여정이 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진행 요원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단독 행동을 포함, 철조망을 만지거나 하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곳을 지키는 군인들의 작전 수행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DMZ는 사람의 손길이 최소화된 생태 보전 지역입니다. 실수로 버려진 음식물이나 설탕 음료가 이곳 동식물들의 터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담배를 비롯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도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DMZ 평화의 길’은 우리가 모두 만들어가는 길입니

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를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코스가 시작되는 백마고지 전적비 주차장 앞에서 안내를 맡은 해설사가 관광객들에게 설명한다. 그를 따라 중부전선 최전방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이동한다. DMZ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 관할이다. 군인도, 민간인도 엄격한 출입 통제를 받기 때문에 청진 이래로 DMZ가 민간인에게 개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누구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단절의 땅이었기에 청정 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된 ‘생물 자원의 보고’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화약고 같은 땅이기도 했다. 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었던 ‘백마고지 전투’가 벌어진 땅을 바라본다.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해발 395m의 이름 없는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 제38군 3개 사단이 벌였던 전투를 말한다. 열흘간 무려 12차례



6·25전쟁 아픔이 깃든 분단의 땅을 돌아보는 철원 코스는 15.0km로 3시간이 걸린다. 70년 가깝게 누구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땅이었기에 청정 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된 ‘생물자원의 보고’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화약고’이기도 했다.



4 2018년 12월 28일 고성 통일전망
타워 개관식
5 'DMZ 평화의 길' 고성 코스
6 6월 1일 'DMZ 평화의 길' 철원 코
스 개방

의 공방전이 이어지며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을 정도로 격전이 벌어졌다.

남북 공동 시범 유해발굴 화살머리고지

철원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백마고지 전망대를 지나 DMZ로 들어가는 공식 통로인 A통문(59통문)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해설사는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비무장지대 그리고 민통선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이어간다.

“우선 휴전선으로 보통 알고 계시는 군사분계선 MDL(Military Demarcation Line)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 사이에 생긴 선이지요. 군사분계선에는 철조망도 장벽도 없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 서쪽에서 동쪽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총 1292개의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70년의 세월로 인해 녹슬고 철판만 남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이 MDL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각각 2km 위치한 곳에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리고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에 놓인 4km의 완충지대가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입니다. DMZ는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남방한계선은 동쪽의 고성에서 서쪽의 파주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248km에 걸쳐 빈틈없이 세워져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나무 기둥에 철조망을 두른 목책이었다고 합니다.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며 목책은 철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에 철책선이 없는 걸까요? 지도상에 표시된 남방한계선과 실제 철책의 위치는 약간 다릅니다. 냉전을 거치면서 남북이 각각 관측이 용이한 지점을 확보하고자 조금씩 다가선 결과지요. 여러분은 조금 더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신 후에 철책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통선은 남방한계선 남쪽으로 5~20km 지점에 자리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입니다. 1954년 2월, 미국 육군사령관 직권으로 휴전선 일대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민통선 안 마을의 주민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



5



6

를 거쳐 농사를 짓거나 하며 생활합니다.”

통문을 거쳐 비무장지대의 GP로 들어가게 된다. 통문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문이다. 통문을 통과하지 않고 비무장지대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통문은 트럭 한 대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평소에는 겹겹의 자물쇠로 잠가둔다. 이곳은 병력이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GP로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병력이 출동한다. 북한군 GP는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군 GP는 유엔 협정을 준수하는 감시초소라는 상징으로 태극기와 유엔 깃발을 상시 내걸고 있다.

이어 유해발굴 장소인 화살머리고지로 이동한다. 화살머리고지로 들어가는 통문 앞 한국군 상황실 외벽에는 ‘조국의 품으로 반드시 모시겠습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다. 화살머리고지는 오른편 3km 지점에 있는 백마고지와 함께 6·25전쟁의 격전지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시범적 공동 유해발굴에 합의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유해발굴에 필요한 출입로와 수색로 확보를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도로를 만들었다.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열린 땅이니 지뢰와 불발탄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 제거한 폭발물만 1800발이 넘을 만큼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었다. 자국이 선명한 철모와 수통 등 주인의 마지막을 대신 말해주는 유품들도 함께 발굴됐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 아버지, 남편이었을 이들의 삶을 간직한 물건이었다. 본격적인 유해발굴이 이뤄지기 전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국적도, 신원도 알 수 없는 13개체의 유해가 발견됐다.

통일전망대 서면 금강산 봉우리 첩첩이

화살머리고지에는 국군 전사자 200여 구와 미군과 프랑스군 등 유엔군 전사자 300여 구 유해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발 281m 높이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정전협정 체결 직전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화살머리고지는 1952년 유엔군 프랑스로 대가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전투에서 44명의 프랑스 병사가 전사했다. 이곳에서 청춘을 바친 프랑스로 대대 참전용사 장 르 우(Jean Le Houx)의 유해도 발굴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유엔군 프랑스로 대대에 자원한 장 르 우 참전용사는 1951년 12월부터 1953년 1월까지 한국에 파병됐고 프랑스로 대대의 주요 전투에 모두 참전했다. 프랑스 한국전참전용사협회장인 파트릭 보두앙(생망데 시장 겸 하원의원)과 장 르 우 참전용사의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11월 1일 장 르 우의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고성 코스다.

고성 A코스(7.9km)는 2시간 30분, B코스(7.2km)는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금강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해금강과 금강산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유해 봉환식이 열렸다. 봉환식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줄리앙 드뤼프 주한프랑스대사관 수석 참사관도 자리를 지켰다.

또 다른 코스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고성 코스다. 고성 A코스(7.9km)는 2시간 30분, B코스(7.2km)는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인 고성 DMZ는 금강통문을 거쳐 금강산전망대에 도착한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해금강과 금강산 풍경은 도보 여행에 나선 이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통일전망대에서는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과 일출봉, 채화봉, 옥녀봉, 신선대, 구선봉, 해금강, 감호 등 계절마다 다른 진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DMZ 평화의 길은 2019년 4월 27일 고성 지역을 시작으로, 6월 1일 철원 지역에 이어 마지막으로 8월 10일에는 파주 지역도 개방됐다. ●

글 강민진 기자, 사진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남쪽 끝 역이 북쪽 첫 역 되는 그날 그리며

평화, 사랑, 화합을 테마로 한 평화열차의 별칭은 'DMZ train'(이하 평화열차). 역사와 자연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땅, 60여 년 전 전쟁의 상처로 남겨진 땅에서 세계적 생태 보고로 거듭난 민통선 지역을 달리는 테마열차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른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2km씩 물려나 만들어진 비무장지대를 맞이하는 열차를 타면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1953년 7월 27일 이후 사람의 발길이 끊긴 땅,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강과 하천의 물줄기를 바라보면 '길은 이어져야 한다'는 감정에 잠긴다.

평화와 생태, 분단의 역사 현장으로 떠나는 평화열차는 2014년 5월 4일 경의선, 8월 1일 경원선 운행을 시작했다. 경원선은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휴전선 민간인 통제구역을 운행하는 평화열차는 국내 관광 열차 가운데서도 승객이 많은 편이다.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접경지대를 볼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여기에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으로 60여 년 동안 끊어져 있던 철로 연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한몫했다.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체험할 수 있던 평화열차는 이제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담아 달린다.

문 대통령-김 위원장 판문점선언 훈풍

평화열차 내부에서 승객들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객실 상부의 공간을 갤러리로 활용해 근현대사 사진 작품을 상시 전

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붙들고 오염하는 것처럼 보이는 노인의 얼굴, 전쟁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가운데 일자리를 찾아 거리로 나선 1950년대의 젊은이들, 이산가족의 비극을 담은 사진 등을 보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을 하는 착각에 빠진다.

3량, 136석으로 구성된 평화열차의 내외부 또한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겼다. 내부는 평화를 상징하는 바람개비, 자유를 상징하는 풍선, 평화누리공원의 연꽃을 모티프로 디자인됐다. 열차의 외관에는 동양인과 서양인, 아이와 어른이 서로 손을 맞잡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1회 왕복 운행하는 평화열차는 서울, 문산, 운천, 임진

임진강역과 도라산역 사이의 임진강 철교를 지나는 'DMZ train 감동의 10분' 구간은 평화열차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도라산 평화공원에서는 생태관광이 이뤄진다. 도라전망대에 오르면 북쪽으로 개성공단이 손에 잡힐 듯하다.



강, 도라산역에 각각 정차한다. 오전 10시 08분 용산역을 출발, 11시 43분 도라산역에 도착하며, 다시 오후 16시 27분 도라산역을 출발해 오후 17시 54분 용산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임진강을 지나 도라산역에 내린 뒤 도라산 평화공원, 통일촌,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임진강역에서 현병의 인원 점검을 받고 시속 20km 내외로 천천히 민간인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간다. 평화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임진강역에서 이뤄지는 신원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수~일 날마다 1회 용산~도라산역 왕복

오른쪽 차창으로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가 남으로 돌아올 때 건넌던 자유의 다리가 스쳐 지나간다. 특히 임진강역과 도라산역 사이의 임진강 철교를 지나는 'DMZ train 감동의 10분' 구간은 평화열차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도라산역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방문해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도 했다.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해설사가 동행해 전시관, 생태연못, 꽃사슴 습터 등 생태관광이 이뤄진다. 도라전망대에 오르면 비무장지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군사분계선 남쪽에 자리한 대성동 자유의 마을, 개성공단이 눈앞에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제3땅굴에서는 도보와 모노레일 코스로 나뉜다.

경의선 허리가 잘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역이 된 도라산역. 이곳은 더 나아가려는 철도의 꿈이 멈춘 곳이다. 남북을 잇는 정기 열차가 없기에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에 자리한 도라산역이 남쪽의 마지막 역이 됐지만 언젠가 이곳이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 될 날을 소망한다. ㉠

글 강민진 기자, 사진 코레일관광개발

 평화열차 여행 일정

용산 서울 문산 윤치 임진강 도라산

10:08~11:24

용산역 출발 → 임진강역 도착

용산역(10:08)–서울역(10:15)–임진강역(11:24)

11:24~11:39

임지가역 신원화인

11:39~11:43

임진강역 → 도라산역



12:10~12:50

도라산 평화공원



13:00~13:50

식당으로 이동 및 통일촌 내 중식

추천메뉴 한식 뷔페: 어른 7000원 / 10세 미만 5000원

14:00~14:30

도라전망대

우리나라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위치한 전망대
개성시, 송악산, 김일성 동상, 기정동 등을 망원경으로
바리볼 수 있다.



14:40~15:40

제3땅굴(도보/모노레일)

제3땅굴 및 DMZ 영상관, 전시관, 상징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모노레일은 정원이 40명으로 영유아 동반인, 임산부, 노약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바랍니다.



15:50~16:27

토일플랫폼 관람

남북 분단의 아픔을 평화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7개의 안보 테마공간
 도라산역 최종인원 점검

16:27~17:54

도라산역 → 용산역 도착

임진강역(16:35)–서울역(17:47)–용산역(17:54)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이나 기상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강릉



주문진해수욕장 '항호해변 버스정거장'

2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3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BTS 앨범 재킷 표지 촬영 주문진 향호해변 버스정거장 1위

“아미(ARMY·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 여러분, 바로 이 길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거닐었던 길, 여러분도 함께 걸어요.”

방탄소년단(BTS)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BTS의 뮤직비디오와 앨범 표지 촬영 장소 등을 찾아 인증샷을 남기는 이른바 ‘방탄투어’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관광홍보 8개 외국어 사이트를 통해 ‘BTS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한국 관광 명소 TOP 10’ 인기투표 이벤트를 실시했다. 한국을 찾은 BTS 해외 팬, 아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탄 성지순례’의 명소는 어디일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해수욕장 향호해변 버스정거장은 BTS의 ‘봄날’ ‘피 땀 눈물’ 등의 히트곡이 수록된 2017년 발매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유 네버 워크 얼론(You Never Walk Alone)〉의 표지에 등장한 곳이

순위별 목적지

① 강릉

주문진해수욕장 ‘향호해변 버스정거장’ 21.8%

↳ 앨범 재킷 촬영지

②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12.2%

↳ 멤버 지민이 다녀간 곳

③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12.1%

↳ 멤버 RM이 다녀간 곳

④ 서울

라인프렌즈 이태원점 11.8%

↳ BTS 전원 방문+굿즈 판매소

⑤ 경기

양주 일영역 7%

↳ 뮤직비디오 촬영지

⑥ 서울

지리산황토골흑돼지식당(유정식당) 6.5%

↳ BTS 단골 식당

⑦ 전국

각지의 멤버들의 모교 4.5%

⑧ 여수

향일암 4.3%

↳ 멤버 RM이 다녀간 곳

⑨ 서울

강남 런드리피자 4.1%

↳ 앨범 재킷 촬영지

⑩ 서울

반포한강공원 3.9%

↳ 뮤직비디오 촬영지



라인프렌즈 이태원점

4

서울





향일암



강남 런드리피자



반포한강공원

다. 총 137개국 2만 2272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BTS 앨범 재킷 촬영 장소인 향호해변 버스정거장(21.8%)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원래 버스정거장은 재킷 촬영을 위해 만들었다가 촬영 후 철거했는데, 이후 팬들이 '방탄투어' 인증샷의 명소라며 이곳을 찾아오자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설치했다.

해외 팬들이 뽑은 명소 2위는 지민이 휴

가차 다녀간 부산 다대포해수욕장(12.2%)이다. 이곳은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이어 3위는 RM이 다녀간 전남 담양 메타세쿼이아길(12.1%)로 앞서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여러 차례 선정된 바 있다. 4위는 굿즈 판매 장소이자 멤버 전원이 방문한 적 있는 서울 라인프렌즈 이태원점(11.8%), 5위는 뮤직비디오 촬영지인 경기도 양주 일영역(7.0%)이다.

연령별 선호도는 달랐다. 10~30대는 강릉 주문진, 40대는 라인프렌즈 이태원점, 50대 이상은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을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로 선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투표에서 인기를 끌었던 장소를 소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방한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글 강민진 기자, 사진 한국관광공사



‘황금연휴, 꿀 생활정보’

‘장 봐야 할 텐데...’ ‘가족들 모이면
가까운 곳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데...’
‘가족과 유원지라도 가보고 싶지만
주차를 생각하니 골치 아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이런 문제를
씩 해결해줄 추석 맞춤형 혜택이 많다.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살펴보면 추석 연휴를 ‘황금’으로
만들어줄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다.
‘추석 연휴, 꿀 생활정보’를 모아봤다.

박물관·미술관 무료 개방 및 소득공제 혜택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겨보고 싶은 이들을 위한 꿀정보도 있다. 추석 연휴 동안 궁, 종묘, 능 및 유적기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단, 경복궁 야경, 창덕궁 후원 관람은 제외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 서울, 덕수궁관)도 9월 12~14일 무료 관람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 서울관은 9월 13일 휴관한다.

추석과 관련한 행사도 풍성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전통 공연예술진흥재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인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가 9월 29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추석 연휴(9월 14~15일)에는 투호, 널뛰기, 팽이치기, 처용무 배우기 등 체험 행사, 농악, 강강술래, 판소리, 가곡, 강릉단오제, 줄타기 등 전통 공연 등이 펼쳐진다. 국립국악원은 9월 13일과 14일 저녁 8시, 연희마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 공연 〈팔도유람〉을 선보이는데 공연 3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는 야외 잔디마당에서 가마싸움(의성 지역의 민속놀이로 먼저 가마를 빼앗는 놀이), 조리희(제주에서 행하던 줄다리기 형식의 민속놀이) 등 추석에 행해졌던 옛 민속놀이를 비롯해 투호, 동차수레, 버나돌리기 등 우리에게 익숙한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을 진행한다.

추석 연휴 기간 박물관, 미술관 무료 개방과 별도로 정부는 7월부터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성수품 직거래 및 특판행사 할인

사과·배 등 과일을 비롯해 한우까지 추석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다. 하지만 명절 상차림에 드는 비용은 늘 부담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추석 명절 기간 직거래장터, 특판장 등을 2700여 개소로 확대 개설하고, 추석맞이 5~50%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특판장 2235개소에서는 제수용품, 과일·한우 선물세트를 10~50%, 직거래장터 244개소에서는 농축산물을 10~30%, 수협 바다마트 제품을 15~30% 할인 판매한다. 그 밖에 로컬푸드 마켓 229개소에서 성수품 및 지역별 농산물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석 선물용으로 적합한 우수 농식품 모음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 공동 캠페인’도 진행한다. 바로정보(www.baroinfo.com),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등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방송을 통해 성수품과 선물세트 구입비, 주변 장터 등 쇼핑에 유용한 정보를 수시로 만나볼 수 있다.

근로자와 기업이 휴가 금액을 각각 20만 원, 10만 원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보태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 관련해 추석 기간에 국내 여행상품 특별할인도 진행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제 대상자는 2018년 2만 명에서 2019년 8만 명으로 확대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자체 등 주차장 무료 개방

명절 연휴, 교통·주차 문제를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는 이들도 많다. 정부는 교통·주차 편의를 위해 9월 12~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속철도(KTX) 역귀성·귀경객에게는 요금을 30~40% 할인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정부24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코너,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상 운영

연휴 기간에 갑자기 배탈이 나면 어떻게 하지? 연휴 때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이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덜어주

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먼저 명절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응급의료포털(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기간은 9월 12일부터 15일까지다.

명절 전후 신규 자금 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명절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는 명절 전후 신규 자금 37조 원을 대출해준다. 이는 2018년 추석 대비 5조 원 늘어난 규모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해준다.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인 9월 10일까지 대상 가구(470만 가구)에 지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5만 곳에는 9월 9일까지 결제대금을 당초 9월 16일보다 5일 앞당겨 추석 전 11일에 지급한다. ⑦

김정연 기자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근정문 앞을
지나고 있다. | 한겨레



한가위를 앞둔 오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석상에 올릴 밤과 대추, 과일 등을
구입하고 있다. | 한겨레

문화·여행 프로그램 주요 할인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간
박물관	국립박물관(14개) 특별공연 및 체험행사	9.12~9.15
	국립민속박물관 특별공연 및 체험행사	9.14~9.15
	국립한글박물관 무료 특별공연	9.14
	국립해양박물관(부산) 특별공연 및 체험행사	9.12~9.1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체험행사	9.14~9.15
	여수세계박람회 무료 체험행사	9.12~9.14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 입장료 50% 할인 (과천, 대구, 광주, 부산) 국립중앙과학관 유료전시관 입장료 50% 할인	9.12~9.15 (9.13 휴관)
문화 유적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 개방	9.12~9.15
	현충사, 세종유적, 칠백의총, 만민이총 무료 개방	
문화 예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과천·덕수궁관 무료 관람	9.12~9.14 (서울관 9.13 휴관)
	국립국악원(4개) 특별공연 및 체험행사	
여행 체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체험 프로그램 등 최대 20% 할인	9.13~9.14
		9.12~9.29

고속도로 교통정보

고향으로! 여행지로! 명절 연휴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일이 많다. '고속도로 교통정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교통정보 앱으로, 고속도로 노선별 소통 상황과 CCTV 정보 그리고 현 위치 기반 주변 고속도로 교통 상황 등을 알려준다. 고속도로 소통정보의 경우, 지점정보 측정장비(VDS), 구간정보 측정장비(DSRC), 영상장비(CCTV) 등을 이용해 실시간 제공된다. 소통 원활(시속 80km 이상)은 녹색, 지체(40km 이상~80km 미만) 노랑, 정체(40km 미만) 빨강 등으로 표시된다. 경로 검색으로 최적의 경로와 휴게소 정보까지 알려주는 기능과 정체 예상 지도, 구간별 예상 소요 시간을 알려주는 교통예보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앱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누리집(www.roadplus.co.kr)을 이용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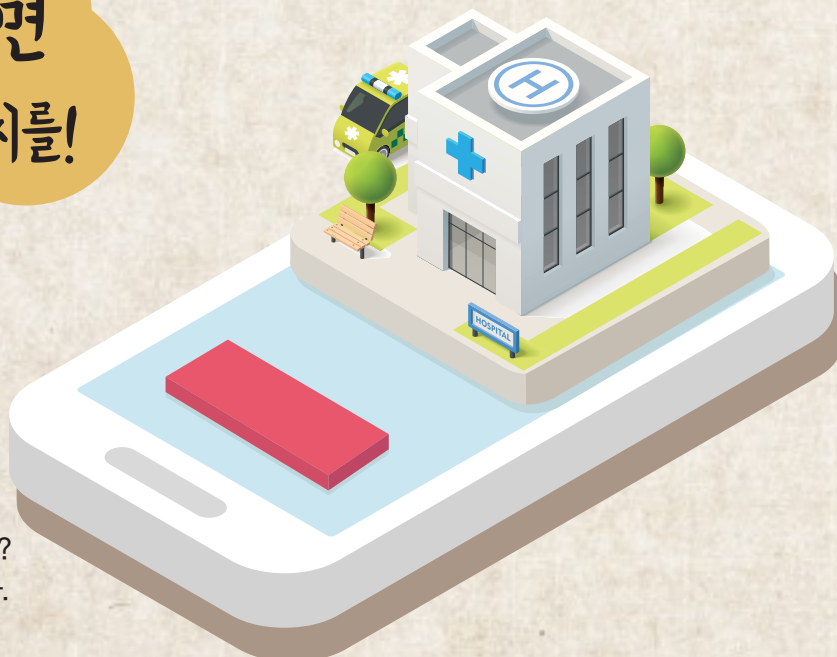
대한민국 구석구석

추석 연휴 중 하루쯤 짬을 내 국내 여행을 다녀오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가족과 식도락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좋은 정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라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활용하면 좋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앱은 관광, 축제, 추천 여행 등 국내 여행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매력을 더 많이 알리자는 취지로 지난 10년간 국내 여행전문가들이 전국 곳곳을 여행하며 취재한 알짜 정보를 앱 안에 모았다. 전국 여행 기사, 관광지, 음식점, 숙박 등 3만여 건의 관광정보 서비스를 문화·역사, 바다, 레저, 휴양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여행 전 여행코스를 설계하는 사용자 여행코스 기능도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관광지, 음식, 숙박, 축제, 행사 등 여행 정보를 안내하고 내비게이션, 지도, 길안내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갑자기 '탈' 나면
'앱'으로 응급처치를!

추석 연휴, 급하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해보고 싶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은 어디일까?
앱 몇 개만 다운로드해도 이런 궁금증은 싹 해결된다.
추석 연휴, 다운로드하면 좋을 앱 정보를 모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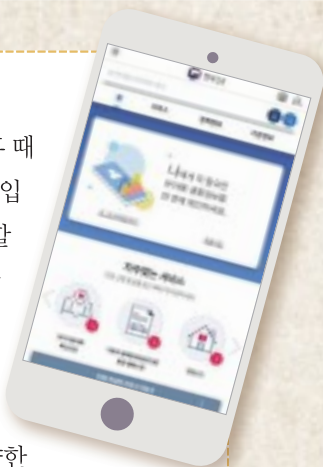
매력 넘치는 우리시장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싶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이벤트는 없을까? 전통시장을 이용하려 하는데 할인 쿠폰 등은 없을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매력 넘치는 우리시장' 앱을 내려받으면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앱은 위치 기반으로 내 주변 시장 소식,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한다. 또한 푸시 메시지 기능으로 전통시장에서 파는 계절 상품 소개, 에누리 할인 등 전단지과 쿠폰 등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단골집' 기능 등으로 단골 가게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역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명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청년상인 육성 시장, ICT 전통시장 등 특성화 시장 정보도 제공한다. 점포 측에서도 사진 및 소식을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정부24

관공서가 문을 닫는 추석 연휴 때 주민등록등본 발급 그리고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을까? 답은 '할 수 있다'이다. '정부24'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12개로 분류해,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5000여 종 민원 사무에 대해 처리 기관, 구비 서류, 수수료, 처리 기한, 관련법 제도 등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중 자주 이용되는 420여 종에 대해서는 모바일 민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앱만 있으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납세증명, 지방세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열람,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재난 대응, 귀촌 준비, 퇴직 후 생활, 어르신 지원 같은 꾸러미 서비스 등 연령대별로 챙겨야 할 서비스도 알차게 정리해뒀다. 그 밖에 다양한 정부기관의 주요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창구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를 하던 명절 저녁, 과식 탓인지 심한 복통이 온다면? 평소 같으면 집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겠지만 명절 연휴 때는 근처 병원이 쉴 수도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 관련 정보 앱으로 응급실, 병·의원, 약국, 자동심장충격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야간이나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빨간 날이 길게 이어지는 명절 때 더욱 유용하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각 병원 응급실의 세부 상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 전화번호 자동연결 기능이 있어 병·의원 및 약국에 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다. 기본 응급처치,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그리고 독극물 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 등 응급처치 관련한 정보도 제공하며 민간구급차 검색 등도 할 수 있다. ⑦



김청연 기자

누가 한일 ‘대결의식’을 부추기는가

“그런데 우리 한국 가면 위험한 거 아냐?”

7월 말이었다. 장기간 지방 출장 중이던 그때, 일본인 아내에게서 ‘우리 한국 가도 괜찮을까?’라는 뜬금없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왔다. 아내는 이미, 그러니까 6월 말에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행 왕복 항공권을 끊어둔 상태였다. 우리 둘을 포함해 장녀, 차녀, 장남, 차남 모두 6명이 마산 고향집에 부모님을 뵈러 가는 연중행사다. 일부러 돈을 아끼기 위해 2개월 전부터 준비했고, 덕분에 6명분의 항공권을 11만 엔(120만 원)이라는 아주 싼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티켓을 끊고 얼마 있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다.

남북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다는 정령안 개정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고, 7월 4일부터 선제적 조치로 불화수소, 포토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소재 수출에 규제를 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보통 일본인들은 이 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다. 왜냐? 내가 이 뉴

8월 30일 오후 도쿄 오쿠보 코리아타운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박철현



처음엔 이런 일본 뉴스가 악의적이라 생각해도 몇 날 며칠 반복적으로 세뇌라도 시키려는 듯 흘러나오다 보면 결국 “우리 한국 가도 괜찮아? 혹시 위험해지는 것 아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스를 듣고 한국에서 본격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났던 7월 7일까지, 그러니까 약 일주일 동안 만난 수십 명에 이르는 각계각층 일본인들이 모두 몰랐기 때문이다.

자극적 보도 앞장선 일본 언론들

대다수 일본인은 한국 안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그 뉴스가 일본 매스컴에 소개되면서부터 알게 됐다. 그리고 불매운동의 근원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있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10월에 있었던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다.

그래도 언제나 그렇듯 남의 이야기라고 여긴다. 정치적 문제 혹은 사안이라고 구분되는 순간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 매스컴에 방송되어도 오쿠보 코리아타운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거렸다. 하지만 7월 21일 참의원 통상선거가 끝난 후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 일본 매스컴, 특히 낮 시간에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장식하던 참의원 뉴스 및 자니스(일본 최대의 아이돌 기획사) 창립자의 사망, 요시모토 흥업(일본 최대의 개그맨 기획사)의 야쿠자 금품수수 스캔들 등이 한풀 꺾이자 그 분량을 한국 뉴스가 대신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 뉴스의 대부분은 불매운동이었으며 과격한 집회 영상들이 반드시 들어갔다. 신문은 각사의 전통적인 논조에 따라 극우(산케이), 보수(요미우리), 중도(마이니치), 진보(아사히·도쿄), 경제지(니혼게이자이)로 갈라져 이번 사태에 대해 보도했고, 독자들 역시 자신이 받아보는 신문사 논조를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방송은 다르다. 특히 광고를 받기 위한 시청률이 절대 조건인 민영 방송국은 논조 따위 관계없이 자극적인 화면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보통 일본인들, 특히 낮 시간대에 이런 뉴스를 볼 확률이 높은 가정주부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내의 친구이자 한국어도 능통한 한류팬 마쓰다(45·주부) 씨는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 뉴스를 많이 접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다”면서 “그것도 하나같이 이렇게 악의적일 수 있는지 신기할 노릇”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일본 뉴스가 악의적이라 생각해도 몇 날 며칠 반복적으로 세뇌라도 시키려는 듯 흘러나오다 보면 결국 “우리 한국 가도 괜찮아? 혹시 위험해지는 것 아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내가 이러다 보니 세상 물정 다 아는 큰딸(만 13세, 중2)과 둘째 딸(만 11세, 초6)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만큼 일본 민영방송의 폐해는 컸다. 나는 일부러 안 봤다. 모니터를 부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한국으로 떠나는 8월 22일 당일이 찾아왔다.

일본인 관광객 반겨준 한국 사람들

결론부터 말하면 아내와 두 딸의 걱정은 기우로 끝났다. 예정보다 늦게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는 바람에 허둥대던 우리 6인 가족 앞에서 있던 부산 아저씨 일행이 항공사 직원에게 사투리, 게다가 반말로 “어이! 요 일본인들 먼저 해주라. 줄이 길어서 알라들이 불안한갑네”라고 외쳐줬기 때문이다.

나도 일본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 아저씨는 우리를 일본인 가족으로 착각한 듯싶었다. 원래 그런 편견은 허용되지 않는데 그 아저씨들의 강렬한 사투리 때문인지 아니면 커다란 목청 때문인지 몰라도 항공사 직원이 다가와 우리 가족을 따로 빼주었다. 라인을 넘어오는데 다른 열의 한국인들도 싫은 기색 없이 자리를 비켜준다. 아내와 큰딸, 작은딸은 연신 “고맙습니다”를 외쳤고, 이런 ‘한국어’ 감사 표시 때문인지 그들의 표정은 어느새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티켓을 얻고 출국 게이트로 나오는데 큰아이가 “한국 사람들 엄청 친절하네. 미야네 상이 틀렸구면 뭐”라고 말한다. 그녀가 말한 미야네 상은 낮 시간대 일본 최고 뉴스 정보 프로그램으로 일컬어지는 니혼TV의 〈정보 라이브 미야네야〉 사회를 맡고 있는 미야네 세이지(宮根誠司)를 의미한다. 그의 방송도 다른 방송들과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불매운동 영상, 이를테면 렉서스를 부순다든가 아사히 캔맥주를 버리는 집회, 보이콧 재팬 등이 걸린 한국 풍경을 내보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 모인 코멘타이터들은 “한국에서 일본인들이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 종종 올라온다” “한국인들도 일본 관광 불매운동하는데 우리도 안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어쨌든 지금 한국은 일본인들에게 위협하다” 등의 발언을 여과 없이 생방송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그걸 몇 번이나 들은 큰아이가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다가 방금 전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인들의 친절함 때문에 금세 “미야네 상이 틀렸다”라고 단언한 것이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트와이스의 광팬이다. 그래서 마산 고향집에 온 김에 트와이스 오리지널 앨범을 사려고 했다. 그런데 앨범을 파는 곳이 시내에 서너 군데밖에 없었고, 인터넷을 검색한 후 힘들게 찾아간 곳은 트로트 앨범만 파는 중간 판매상이었다. 나와 둘째가 좌절하던 그때 중간 판매상 사장님이 자기 휴대전화로 몇 군데 전화를 걸더니 우리에게 “창동이라고 아냐? 거기 가면 길 벗레코드라고 있는데 트와이스가 뭔가가 두어 개 있는 모양이니, 거기 함 가봐라”라고 말한다. 택시



1 일본 시민들이 8월 4일 오후 도쿄 신주쿠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 일본 도쿄 중심가인 긴자 거리에서 열린 시위대 수백명이 '위안부 합의 규탄 국민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 연합

도쿄에 와보면 아마 놀랄 것이다.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일본인이라고 한국에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듯.여기서도 차별이나 괴롭힘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를 타고 부리나케 달려가니 이미 주인아주머니가 트와이스 앨범을 종류별로 꺼내 준비해놨다.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 원래는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악보집이나 포스터 등도 한 아름 안겨준다. 둘째가 깜짝 놀라 “이게 다 뭐냐?”고 묻고 나는 “네가 일본에서 트와이스 앨범 사러 왔다고 서비스로 주는 거래”라고 말했다. 그러자 딸은 바로 “최고! 한국 최고!”라고 한국어로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주인아주머니는 둘째를 쓰다듬으며 뭐가 그리 웃긴지 박장대소를 했다. 이번 한국 여행에서 우리 아이들은 완벽한 친한파가 되었다. 당연하다. 지난 2개월간 일본 방송 언론이 전한 한국의 모습과 아이들이 실제로 겪은 한국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큰아이는 방송 뉴스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고 이걸 주제로 개학 후 사회과 수업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트와이스 멤버 카드를 나눠주며 한국의 친절함 아주머니한테서 공짜로 받은 거라고 말할 것이라 한다.

일부러 자극과 가십거리 만들지 말아야

그런데 언론의 이런 행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언론의 일본에 관한 보도를 보면 도inken이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의 일본인들은 앞서 말했듯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접하는 방송이나 언론의 뉴앙스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정치성은 전통인지라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습속이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는 여론조사가 70~80%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여론은 일본 언론이 반복과 세뇌를 통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이걸 그대로 인용하고, 이 기사를 본 한국인들은 일본 사회를 욕한다. 서로가 서로의 보도를 인용해 양국 시민들의 대결 의식을 부추긴다.

하지만 도쿄에 와보면 아마 놀랄 것이다.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일본인이라고 한국에서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듯, 여기서도 차별이나 괴롭힘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늘 하는 말이지만 언론이 먼저 나서서, 혹은 일부러 자극과 가십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모든 것은 평화롭게 흘러갈 것이다. ●

박철현 제일 칼럼니스트



“국산화하면 세계시장이 다 우리 겁니다”

7월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렸다. 강연자로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을 만나 물어보니 불화수소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이 사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뒤 박 장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품질의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최 회장은 “순도가 얼마인지, 또 공정마다 불화수소의 분자 크기도 다른데 그게 어떤지가 문제”라며 “공정에 맞는 불화수소가 나와야 하지만 우리 내부(국내)에선 그 정도까지 디테일은 못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발언에 대해 엘베스트GAT(지에이티) 김중식 사장은 “최 회장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터지기 전에 최 회장이 불화수소를 알았겠습니까? 불화수소가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원가는 먼지 수준에 불과할 텐데, 그 정도면 부장급에서 관리하는 항목일 겁니다. 근데 부장이나 연구원들은 중소기업이 국산화했다고 찾아

가도 절대 안 해줍니다. 원가 개선 효과는 미미한데, 잘못하면 제품 자체를 망쳐버리거든요.”

‘원가도 작은데 수입해 쓰지’ 풍토가 장벽

그가 장담하는 이유는 2017년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려다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 등 철 소재 부품의 부식을 막는 표면처리(코팅) 화학제인 ‘아연-알루미늄말 복합피막’ 시장은 일본유지(NOF)가 70% 이상 독점해왔다. 나머지 30%도 미국 마그니(Magni), 독일 도루켄(Dorken)·아토텍(Atotech) 등 수입산 제품이 장악하고 있다. 엘베스트GAT는 2012년부터 수입산을 능가하는 제품을 내놓기 위해 연구에 매달린 끝에 5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자 불화수소와 똑같은 벽에 부딪혔다.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시험해서 성능을 인정해야 채택이 되든지 할 텐데, 그 문이 아예 닫혀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만드는 건 산업용 화학첨가제예요. 음식으로 얘기하면 조미료입니다. 안 들어가면

1 충북 음성에 있는 엘베스트GAT 기술연구소와 공장 전경 | 엘베스트GAT

2 8월 23일 서울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엘베스트GAT 김중식 사장이 소재 국산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원낙연 기자



중소기업이 국산화한 소재를 현장에 적용하면 반드시 보완할 점이 나온다.

대기업이 인내를 갖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국산화는 불가능하다.

김중식 사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업의 문화를 만들어 결실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맛이 안 나오고, 잘못 선택하면 음식을 망치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품토는 ‘차지하는 원가도 작는데 수입해서 쓰면 되지, 뭐 하러 위험하게 그걸 국산화해?’ 하거든요. 우리 국민이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가지 품목 모두 (단가와 시장 규모가) 작은 소재입니다. 큰 소재들은 원가 개선 효과가 크니까 다 국산화했는데, 이런 작은 소재들은 아직도 수입산에 의존해요. 자동차 회사는 99% 국산화했다고 주장하는데, 마무리하는 작은 소재는 수입산이에요. 볼트, 너트, 브래킷 다 국산화했어도 그 표면에 올리는 코팅제는 일본산인데요?”

자동차 회사에 설움을 당하고 다른 판로를 모색하던 엘베스트GAT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왔다. 삼성중공업이 선박 부품의 표면처리 기술을 아연-알루미늄말 복합피막으로 바꾸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조선업체는 부식 방지 성능은 떨어지지만 저렴한 ‘핫답갈바나이징(용융)’이라는 코팅 기술을 쓰고 있었다. “바닷가에서 2~3년 동안 배를 만드니 녹슬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건조가 끝나기 전에 부품이 녹슬면 한 번 갈아 끼우는 데 8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절감을 고민하던 삼성중공업에서 자동차에 쓰는 코팅 기술이 훨씬 좋다는 걸 알고 기술 변경을 검토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접촉했을 때는 일본과 독일 제품으로 막 테스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국산이 있다는 걸 모르고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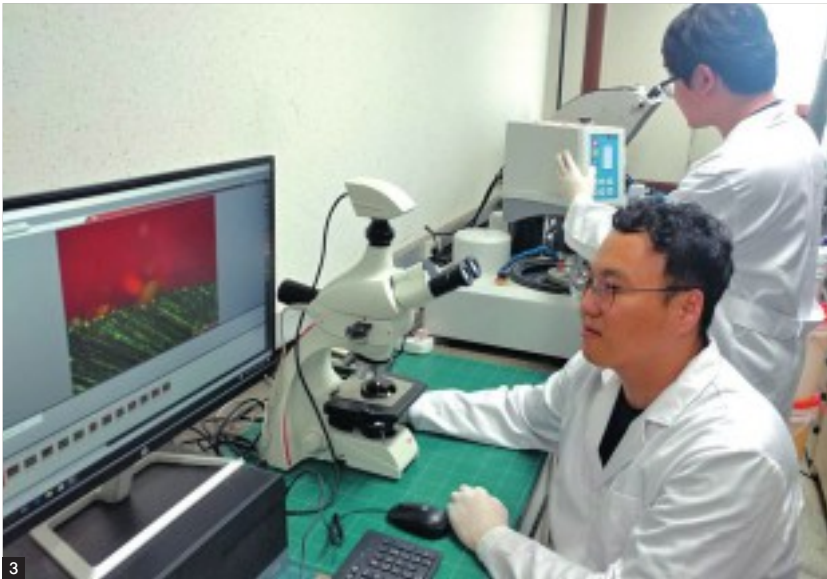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기회 찾아와

2017년 2월 다행히 비교 시험에 뒤늦게 참여할 수 있었다. 1년 가까이 걸린 테스트가 끝나고 2018년 1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받았다. 수입산은 모두 문제가 생겼는데, 엘베스트GAT 제품만 아무런 문제 없이 삼성중공업 기준을 통과한 것이



다. “삼성중공업은 일반적인 표면처리 테스트와 달리 표면처리된 부품에 일부러 손상을 가한 뒤 얼마나 녹는지 지켜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제품은 한번 손상을 받아도 복원력이 뛰어나더라면서 좋게 평가했습니다. 수입산을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충북 음성에 있는 연구소 직원들이 5년이나 고생한 보람이 있었던 거죠.”

엘베스트GAT라는 중소기업이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 삼성중공업의 선박 부품 코팅 사업을 따냈다는 소식을 듣고 현대중공업이 찾아왔다. 2018년 8월 나사·볼트·너트 등에 대한 선박용 코팅 기술 공동개발에 들어갔다. 올해 6월 기술 개발을 완료한 뒤에는 다른 부품까지 넓혀 2차 공동개발에 들어갔다. 기존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부품을 철 소재로 바꿀 수 있다면 원가 절감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우리 제품이 후발 주자지만, 선박 쪽에서는 거꾸로 우리가 선발 주자입니다. 한국 조선업체 말고는 표면처리에 아연-알루미늄말 복합피막을 쓰는 곳이 없어요. 세계 조선업체의 선도기업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우리 제품을 쓰고 있고 품질이 훨씬 뛰어나다는 소문이 나면 중국과 일본 등



3~5 엘베스트GAT 기술 연구소 직원들이 화학 첨가제의 국산화를 연구하고 있다. | 엘베스트GAT

세계시장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박 말고도 농기계, 풍력발전, 방위산업 등 시장이 굉장히 넓어요. 최근에는 장갑차에도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베스트GAT와 한국산노프코 등 엘베스트그룹(회장 손진익)이 국산화에 도전해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굵직한 경제위기가 기회가 됐다. 1997년 초만 해도 김중식 사장이 재직하던 한국산노프코는 연 매출이 65억 원에 불과했다. 1993년 부설 연구소를 설치해 제지, 펄프, 도료 등 산업용 특수화학 첨가제를 독자 개발했지만 판로 개척에 애를 먹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저희 제품을 시험해보면 기존 수입산과 대동소이하게 나와요. 하지만 ‘첨가제 잘못 건드렸다가 제품 망치면 어떻게 하냐’는 분위기여서 쉽게 바꾸질 않습니다. 그러다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고 외화가 부족하니까 대기업 상부에서 ‘기존에 수입하던 것 가운데 국산화할 수 있는 거 다 뒤져봐’라고 지시가 떨어진 거죠. 부랴부랴 우리 제품을 채택했는데, 써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렇게 자리 잡았어요.”

국산화 뒤 3년 만에 일본제품 철수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연 매출 255억 원 회사로 성장한 한국산

노프코는 다음 국산화 대상으로 LNG 저장탱크나 고속철도 등 주요 시설을 지을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혼화제용 감수제에 주목했다. 국내시장은 일본과 독일 제품이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적정 가격의 6~7배 비싸게 공급하고 있었다. 2003년 국산화한 뒤 적정 가격에 판매하자 불과 3년 만에 일본 제품들은 국내시장에서 철수했다.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외국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한 게 2008년 4월, 그로부터 반년 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거의 원가에 가깝게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환율이 15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이익이 많이 남게 됐어요. 2009년 창사 이래 최고 이익을 얻으면서 연 매출 2000억 원 가까운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수출 지역도 영국, 스페인 등으로 넓히면서 지금은 50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엘베스트그룹의 성공 공식이 완성됐다.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수입산을 국산화한 뒤 세계시장에 팔아 성장한다는 것이다. 사실 엘베스트GAT의 전신은 1987년 일본 NOF와 함께 설립한 합작사(한국삼로크)다. 아연-알루미늄말 복합피막 제품을 20년 넘게 수입해오다 2009년 NOF와 결별하면서 지분을 모두 넘겼다. ‘3년 동안 같은 업종에 진출하지 않



“수입하는 데 만족하면
국내시장밖에 못 팔아요.
그러면 시장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걸 완전히
국산화하면 세계시장이 다
우리 겁니다.”

는다는 약정에 묶여 2012년이 되어서야 국산화를 시작했고 5년 만에 성공한 것이다. “당장은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수입하는 소재가 있어도 ‘우리가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수입하는 데 만족하면 국내시장밖에 못 팔아요. 그러면 시장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걸 완전히 국산화하면 세계시장이 다 우리 겁니다. 콘크리트 혼화제용 감수제도 국내시장은 150억 원에 불과하지만, 세계시장에 나가서 10배인 1500억 원의 매출을 매년 올리잖아요. 만약 그때 우리가 국산화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일본에서 규제하는 수출품 가운데 하나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업해야 기술독립”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국산화한 제품이 국내시장 진입에 성공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덕에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김중식 사장은 “이번에 세 번째 기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 부는 바람이 실질적인 기술 독립으로 이어지려면 기업 현장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에서 발단이 되어 반일 감정이 생기고 소비재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국민은 산업재의 기술 독립을 기대하는데, 정작 기업 현장에 부는 바람은 무풍 내지 미풍입니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빠져 통관하는 데 한 달이

더 걸리니 주문 시기를 한 달 앞당기고 재고를 미리 확보해두자, 이게 대응책이에요. 기업들이 지금처럼 대응하면 ‘말짱 황’이 되는 겁니다. 작은 소재 때문에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번 기회에 작은 소재를 국산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차지하는 원가는 얼마 안 되지만 필수 불가결한 소재들을 찾아내 국산화해야만 이 어려움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일본에서 ‘저 바람 금세 꺼질 거야’라고 말해 국민의 울분을 샀는데, 근본이 안 바뀌면 계속 우습게 볼걸요.”

국산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이 국산화한 소재를 현장에 적용하면 반드시 보완할 점이 나온다. 대기업이 인내를 갖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국산화는 불가능하다. 적용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나와도 용인하고 고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니까 자기를 기술이 있잖아요. 중소기업과 함께 보완해나가는 협업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잘 되는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재들이 센 겁니다. 이번 바람이 의미 있는 태풍이 되려면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상생과 협업 문화 속에서 결과물이 나오고 결실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되면 또 기술 종속 관계가 될 겁니다.” ●

원낙연 기자

노적가리



정훈이

기원전 28년 음력 4월, 낙랑군이 신라에 쳐들어갔다



변경의 신라 백성들이 밤에도 문의 빗장을 걸지 않고, 들에 노적가리가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신라는 백성들이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는 도(道)가 있는 나라인데



기습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다면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고 <삼국사기>는 전한다.



‘노적가리’란 벋단·보릿단 등의 곡식단을 원통이나 원추형으로 쌓아놓은 것이다.



오늘날에는 수확과 동시에 탈곡과 도정을 하지만,



옛날에는 한꺼번에 많이 거둔 곡식을 일시에 탈곡하지 않고 곡식알이 붙어있는 채로 야적을 했는데



노적가리는 남알이 붙은 쪽을 안쪽으로 해서 원통형으로 2미터가량 여러 겹 쌓고, 비나 눈에 맞지 않게 덮개를 씌운 것이다.



‘노적가리 불붙이고 튀각 구워 먹는다’나 ‘노적가리에 불 지르고 싸라기 주워 먹는다’ 등



비생산성을 나무라는 속담들을 보더라도 노적가리에는 곡식알이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적가리처럼 생겼다고 노적산이라고 이름 붙은 산도 전국에 여러 개 된다.



들과 집 마당에 쌓인 노적가리만 세어도
그 집의 재력을 알 수 있었다.



부잣집일수록 마당이 넓은데 마당이
바로 노적가리를 위한 아적장이기
때문이다.



노적가리는 '풍요의 상징'으로 동·서양이
다르지 않았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에는 풍요와
빈곤의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의 저 멀리 노적가리가 있다.



이순신 장군은 들판에 벼짚으로 위장용
노적가리를 쌓아서 왜적에게 군량미가
넉넉하다고 속이기도 했다.



밤에 몰래 서로의 노적가리에 벼단을
 옮겨주다 마주친 의종은 형제 동화나
앞서 언급한 낙랑군 일화처럼



들에 쌓인 노적가리는 여유롭고 넉넉한
목가적인 풍경처럼 보이지만,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사정은 달라지는데



혹시나 도둑이 노적가리의 곡식을 훔쳐
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농부의 현실이
펼쳐진다.



마을 단위로 야간 감시조를 편성해서
교대로 순찰하거나



흉년에는 아예 눈에 움막을 지어
풍찬노숙하며 노적가리를 지켜야 했다.



미래지향적 혁신성장으로 ‘한국경제 재도약’

미중 무역갈등과 노골화하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이후
 여전히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벤처·미래 신산업·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긍정적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7대 성과는 뚜렷하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미래 신산업 육성
 △제조업 혁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구조 다변화
 △규제혁신이 그것이다. 정부가 공들여온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본다.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형, 대구형, 구미형, 강원형
 일자리가 잇따라 창출됐다.

①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 사회적 대타협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은 일자리 창
 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형, 대구형, 구미형, 강원형 일자리가 잇따라 창출됐다. 광주형 일
 자리는 5754억 원 규모의 투자로 약 1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
 과가 기대된다. 밀양형 일자리의 경우 조성 과정에서 3500억 원 규
 모의 투자와 지역 주민 500명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다. 대구형 일자리는 지역 중견기업 경영난 극복 사례로 주목을 받
 았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 4만 3000명의 고용이 보장됐다. 구미형
 일자리는 이차전지 국산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100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강원형 일자리는 초소형 전기차 완성공장
 조성으로 579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은 통상적인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
 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신규 일자
 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유형이다.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지
 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주체 간 양보와 타협이 중
 요해진 상황에서 지역 단위 상생은 국가 단위 사회적 대타협을 이
 루게 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구분 및 협약식 체결일	투자 및 고용효과
광주형 일자리 (1.31) 23년 만에 국내완성차 공장 신설	5754억 원 투자 직·간접 신규 고용 1만 3000개 창출 예상
밀양형 일자리 (6.24) 뿌리기업 입지문제 해결	3500억 원 투자 지역 주민 500명 신규 고용 예상
대구형 일자리 (6.26) 지역 중견기업 경영난 극복	협력업체 4만 3000명 계속 고용
구미형 일자리 (7.25) 이차전지 국산화 클러스터 조성	5000억 원 투자 직·간접 신규 고용 1000명 창출 예상
강원형 일자리 (8.13) 초소형 전기차 완성공장 조성	661억 원 투자 신규 고용 579명 창출 예상

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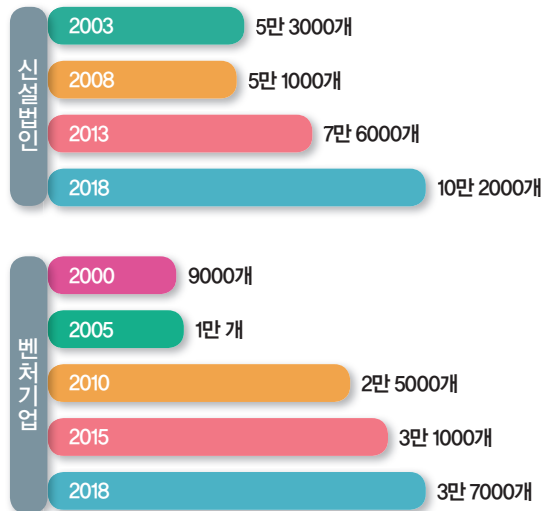
②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 벤처투자, 기업 수 역대 최고치 '제2 벤처 봄' 조성

문재인정부 들어 벤처 창업이 활성화하고 있다. 2018년 벤처투자 금액(3조 4000억 원), 신설법인 수(10만 2000개), 벤처기업 수(3만 7000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신규 벤처투자는 1조 4894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 1조 2928억 원보다 15.2% 늘었다.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매출 1000억 원 이상 올린 벤처기업(1000억 벤처)과 매출 1조 원 이상 올린 벤처기업(1조 벤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7년 513개이던 '1000억 벤처'는 올 초 573개로 늘었다. 4개에 그치던 '1조 원 벤처'는 11개가 됐다. '창업-투자-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면서 제2의 벤처 봄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제2 벤처 봄 확산을 위해 스케일업(Scale-up·기업의 폭발적 성장)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3월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마련해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중견기업 및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

신설법인·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 규모 역대 최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③ 미래 신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로 혁신성장 가속

문재인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한 후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전략(2017년 12월),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2018년 1월), 인공지능 연구 개발(R&D) 전략(2018년 5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년 6월)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면서 혁신성장동력 추진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적 가치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019년 743억 원)했다.

스마트공장 보급은 2017년 5003개에서 2018년 7903개로 늘



2018 드론 규제 샌드박스 성과박람회, 드론은 2017년 11월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미래 고부가가치 신산업이다. | 항공안전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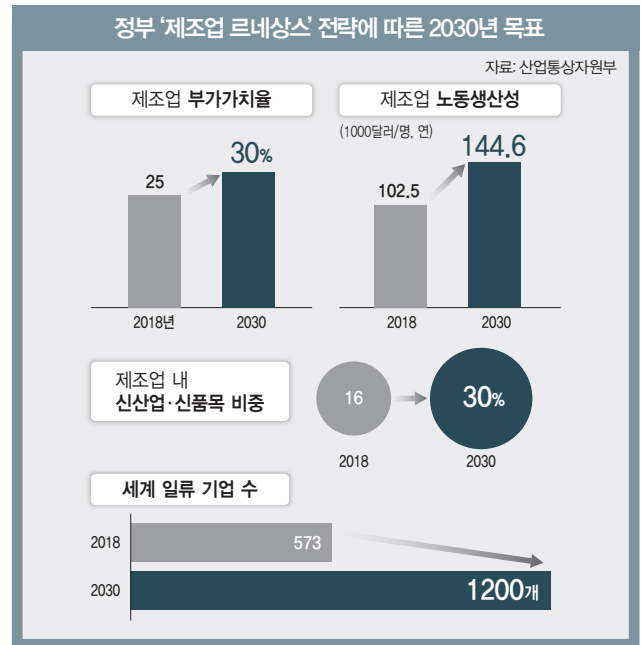
었고, 전기·수소차 보급은 2017년 각 2만 5000대, 200여 대에서 2018년 5만 7000대, 900여 대로 증가했다. 핀테크 기업 수도 크게 늘어 2017년 말 146개에서 2018년 말 269개로 확대됐다. 공공부문 드론 구매 실적은 2017년 500대에서 2018년 1600대로 늘었다.

④ 제조업 혁신 | 스마트·친환경 가속, 제조업 세계 4대 강국 도약

정체 위기에 빠진 제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6월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다. 신산업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주력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그림이다.

먼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기존 주력산업은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적기 대규모 투자,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 등으로 경쟁자가 쫓아올 수 없는 절대 경쟁력인 '초격차'를 이룬다. 자동차와 조선은 친환경·스마트화로 재도약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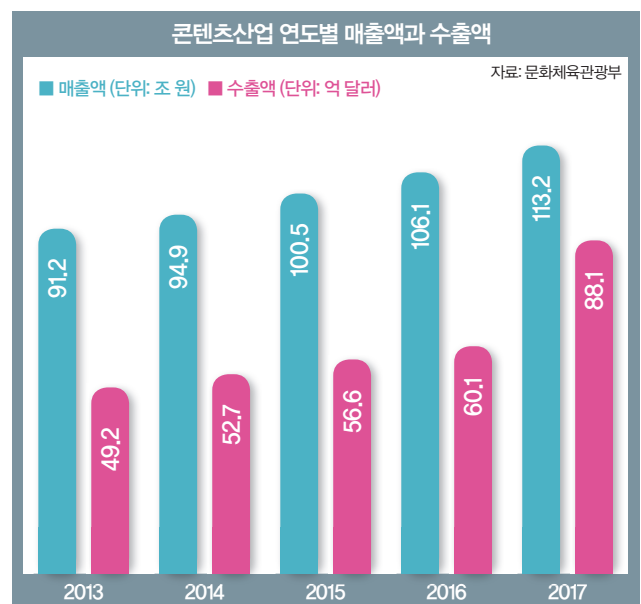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자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에도 발 빠르게 나선다. 친환경차·선박, 공기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을 공략할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수요 창출을 지원하면서 클린팩토리·청정제조 산업단지로 전환을 유도해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다.



⑤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 콘텐츠·관광·게임산업 육성 경제성장 이끌어

문재인정부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로 경제성장 견인을 꾀하고 있다. 콘텐츠, 관광, 게임 등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10~20%포인트 낮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8년 59.1%에 그쳤지만 미국은 79.5%, 일본 69.5%, 독일 68.1%, 영국 79.2%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6월 26일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70조 원 늘리고,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 원을 투자한다. 2023년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50만 개 이상 추가로 창출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18년 59.1%에서 64%로 5%포인트 확대하는 등 정체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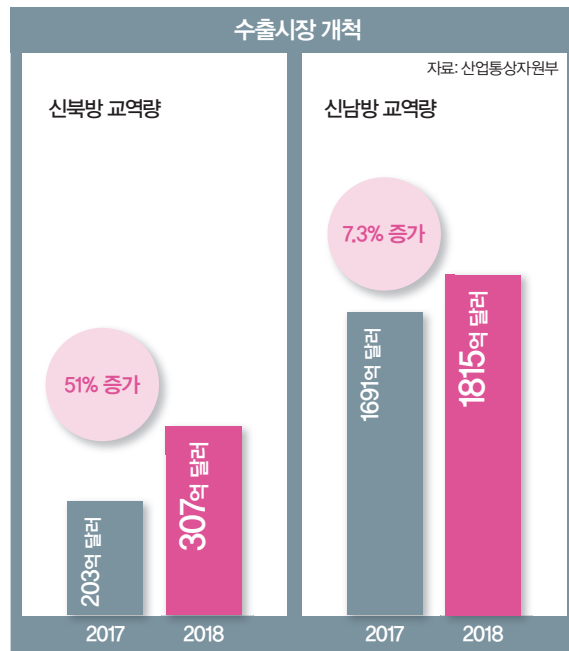


⑤ 수출구조 다변화 | 신남방·신북방 교역량 증가 새 수출 활로 개척

문재인정부는 수출 시장과 품목·주체·방식 등을 다변화해 수출 경쟁력을 회복했다. 무엇보다 신남방·신북방 국가 교역량 증가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했다. 신남방 교역량은 2017년 1691억 달러에서 2018년 1815억 달러로 7.3% 늘었다. 신북방 교역량은 같은 기간 203억 달러에서 307억 달러로 51% 증가했다. 11월 25~26일 부산에선 신남방정책의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이하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이차전지·전기차·바이오헬스 등 신(新)수출성장동력 수출 호조 세도 지속됐다. 2019년 4월과 6월에는 각각 바이오헬스와 소비재·문화콘텐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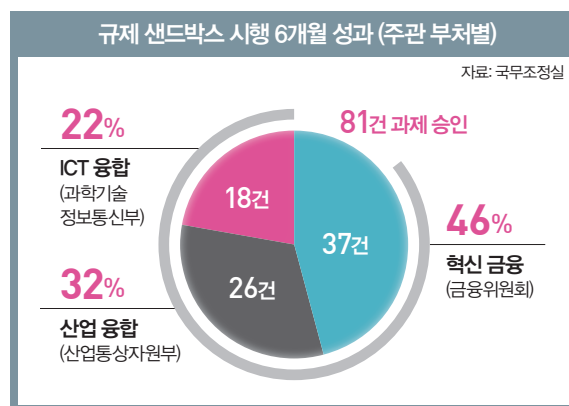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기업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액을 보면 2013년 955억 달러에서 2015년 962억 달러, 2017년 1061억 달러, 2018년 1087억 달러로 늘었다. 연도별 수출 중소기업 수도 2013년 8만 8000여 개에서 2018년 9만 4000여 개로 증가했다.



⑦ 규제혁신 | 8월까지 116건 승인, 올해 목표 100건 훌쩍 넘겨

문재인정부는 규제혁신 가속화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에 나섰다.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정부는 8개월 만에 모두 11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당초 2019년 한 해 목표인 100건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 주요 규제혁신 사례로는 △도심 수소충전소 △오토바이 광고 △QR 간편결제 등이 꼽힌다. 도심 수소충전소는 그동안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용도지역 규제를 풀어 설치를 허용했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노점상 등)에게도 QR코드를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했다.

또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신산업 규제혁신도 주목을 끌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34%로 확대했고, 드론 업체가 밀집된 대전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비행금지 구역이지만 일부 지역을 비행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밖에 민생불편 규제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



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개장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 ①

원낙연·김청연 기자

전세계 시간을 통일한 철도의 힘

여태 타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교통수단은 마차입니다. 서부 개척시대에 황무지를 달리거나 유럽의 도시 사이를 다니던 우편마차 같은 것 말입니다. 내가 꿈꾸는 마차 여행에 대해 정작 19세기 여행자들은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1876년 이탈리아 여행을 마친 괴테는 “차를 에서 인탈로 우편마차를 타고 내려왔다. 경치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우편마차는 내가 원하던 것보다 더 서둘렀다”라고 썼습니다. 또 8년 후 프랑스 작가 그자비에 콩트 드 메스트르도 “우편마차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많은 것들을 도보 여행자는 볼 수 있다”라고 썼지요. 둘 다 마차 여행에 불평을 한 것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은 급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오랜 훈련과 강인한 체력이 필요했죠. 달릴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었

습니다. 그저 말은 또각 또각거리면서 천천히 걷는 정도였습니다. 말을 타는 것은 단지 발이 아프지 않고 다리가 피곤하지 않으면서 뭔가 위엄을 뽐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말을 타고 여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짐을 실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차를 만들어서 여러 명이 함께 타고 지붕이나 뒤쪽에 짐을 실었습니다. 장거리를 움직이려니 여러 마리의 말을 함께 묶어야 했지요.

1830년 9월 15일 첫 기차 여행

시끄러운 말발굽 소리와 삐그덕거리는 바퀴 소리 그리고 심한 흔들림 때문에 우편마차 여행객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차가 빨리 달린 것도 아닙니다. 평지에서조차 마차 속력이 시속 10km를 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도 40~60km로 한정되었습니다. 말이 자주 쉬어야 했고 승객 역시 달리는 마차에서 잠을 청할 수는 없기에 여관에서 짐을 풀고 숙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행가들이 불평을 늘어놓는 마차 여행조차 18세기와 19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성행했습니다. 도로가 포장된 시기와 맞물리죠. 그렇다면 마차를 이용하기 전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걸어야 했으니 우리가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정이었을 겁니다. 빨리 걷는 사람들은 시속 6km까지도 걸지만 보통 사람들은 4km의 속력으로 걷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마라톤 선수들은 시속 20km를 낼 수도 있습니다. 속력은 아마 이게 한계일 것입니다. 거리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50km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발바닥이 아파서 더 걷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신발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발이 더 아팠

강원서도 태백 도계역에서
통리역 구간을 열차가 달
리고 있다. | 한겨레



조. 또 짐이 없이 맨몸일 때 이야기입니다. 짐을 듣거나 메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아주 한정되었습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호화 마차는 이야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23마리의 말이 3일 동안 650km를 달렸으니까요. 이 마차에는 호화스러운 가구와 오븐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러시아 황제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된 여행을 하게 된 것은 순전히 기차 덕분입니다. 1825년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은 석탄이 가득 실려 있는 운반 차량의 행렬에 증기기관을 연결했습니다. 증기 엔진은 석탄을 20km 떨어진 항구까지 운반했지요. 역사상 최초의 증기기관차를 본 사람들은 금방 깨달았습니다. 석탄을 운반할 수 있다면 사람은 왜 안 되겠는가? 1830년 9월 15일 증기기관차가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 46km 구간을 사람을 태우고 운행했습니다. 마침내 기차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이 열차는 순간 최고 시속 46km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체 구간 평균속력은 시속 23km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름만큼은 최고였죠. 무려 '로켓호'였으니까요.

시계탑, 도시 한가운데서 철도역으로

마차망은 철도망으로 급속히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간표입니다. 1784년에 마차 여행에도 운행 시간표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출발 시간만 있었죠. 도착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그저 출발 시간만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도시마다 시간이 달랐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이 정오였거든요. 그다지 큰 나라가 아닌 영국 안에서도 도시에 따라 최대 30분이나 시간이 달랐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라디오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다른 도시와 내가 있는 도시의 시간 차이를 누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철도는 달랐습니다. 출발과 도착 시간을 표시해야 했지만 도시마다 시간이 다르니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도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철도 회사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들의 근거지가 되는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글래스고 같은 공업 도시 대신 천문대가 있는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때가 1847년입니다. 철도 회사들이 통일된 시간을 사용하자 다른 기관들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 영국 정부는 아예 영국의 모든 시간을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삼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도시의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온 승객들이 자신의 시계를 그 도시 시간에 맞춰야 했기 때문이죠. 철도망이 확장될수록 시계탑은 철도역 정면 벽으로 옮겨왔습니다. 유럽 대륙을 여행하거나 미국처럼 큰 나라를 여행할 때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시간을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차역마다 커다란 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들여다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시간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계인이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증기기관과 기차는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입니다. 인간이나 말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증기기관은 힘만 만드게 아닙니다. 전 세계인의 시간을 통일했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상과 언어는 달라도 적어도 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참, 그리니치천문대 입구 벽에는 시계가 달려 있는데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표시된 시계입니다. 시간을 읽기 아주 불편합니다. ●



영국 그리니치천문대
표준시계 | 한겨레



이정모 현재 서울시립과학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생화학을 전공하고 대학교수를 거쳐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을 지냈다. <250만 분의 1>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내 방에서 콩나물 농사짓기> 등 읽기 편하고 재미있는 과학 도서와 에세이 등 60여 권의 저서를 냈고 인기 강연자이자 칼럼니스트로도 맹활약 중이다.

포털의 미래 큰 그림 그리는 '나우'

박재범의
〈BROKEN GPS〉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 '나우(NOW)'라는 탭이 새로 생겼다. 네이버 모바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라이브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다. 말 그대로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24시간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다. 아이돌·힙합·알앤비 등 장르를 불문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호스트로도 참여했다. 하성운이 진행하는 〈심야아이돌〉은 프로그램 종료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콘셉트의 아이돌 오디오쇼로 사용자와 자유분방한 이야기를 나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뭐든지 다 해보는 오디오 버라이어티 쇼〉다.

박재범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가 궁금한 사람을 인터뷰하는 토크쇼 〈브로큰 GPS(BROKEN GPS)〉를 비롯해 요즘 화제인 더콰이엇·염따·이진우의 〈랩하우스 온에어(RAPHOUSE ON AIR)〉, 기리보이·한요한의 〈기요한 이야기〉 등 국내 정상급 래퍼들이 호스트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나우는 그야말로 모바일 시대의 라디오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대별로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god의 데니안·손호영이 진행하는 〈점심어택〉은 점심시간에 스트리트 인터뷰로 구성되고,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가 진행하는 〈스쿨로드〉는 아이들이 등굣길을 함께하

는 국내 최초 아이돌 모닝쇼다. 페퍼톤스의 이장원이 진행하는 〈6시 5분전〉은 앨범이 발매되는 매일 6시에 아티스트 본인에게서 앨범 이야기를 듣는 라이브 토크쇼, 〈들려주고 싶어서〉는 매일 다른 연예인이 출연해 요즘 듣는 노래 등을 직접 선곡한다.

전환율이 아니라 점유율 우선

나우는 네이버 모바일의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네이버 앱을 열자마자 쓸 수 있는 것이다. 유료로 결제하지 않아도 끊김 없이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다른 음악 서비스 입장에서 너무나 위협적이다. 낱씨 오른쪽 영역의 나우 로고를 터치하고, 스트리밍 중인 프로그램 가운데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골라 들으면 된다.

물론 네이버의 음악 서비스인 바이브와도 연동되지만, 부분적으로 제공될 뿐이다. 사용자 입장에선 이 서비스는 바이브 결제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서비스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나우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되는 이유다.

네이버는 나우에 대해 앞으로 라이브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 포맷을 실험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성장하는 오디오 콘텐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운다는 얘기



아티스트 본인에게서
앨범 이야기를 듣는 라이브 토크쇼
<6시 5분전>



하성운의
<심야아이돌>



god의
<점심이택>

다. 그런데 모두들 인공지능과 자동 큐레이션을 기반으로 유료 결제를 지향하는 마당에 왜 네이버는 라디오처럼 보이는 서비스를 오픈했을까?

일단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은 네이버의 '왜'는 다른 곳(요컨대 스타트업)의 '왜'와는 무척 다르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네이버는 서비스를 수익 모델로 전환한 적이 거의 없다. 수익모델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서비스는, 오직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PC 시절의 네이버 서비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압도적 경쟁력을 가졌다. 네이버 입장에서 서비스는 전환율(사용자가 결제하는 비율)이 아니라 점유율(사용자가 머무는 시간)을 우선으로 삼는다.

그래서 나우는 네이버 모바일 앱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제까지 네이버 모바일 앱은 구글이나 카카오 같은 타사의 검색 앱이나 메신저 앱에 비해 점유율이 낮았다. 얼마 전 메인 페이지를 깨끗이 비워버린 네이버 앱의 개편은 바로 그 점을 의식했다. '더 심플하게'가 곧 개편의 방향성이었던 셈이다.

덕분에 검색 UI는 깔끔해졌지만, 기존 네이버 메인에서 이것저것 사용하던 나이 많은 유저들로서는 편리한 건 아니었다. 반면 젊은 세대에겐 검색할 때를 제외하고는 네이버 앱 자체를 열 이유가 적었다. 그나마 검색도 구글이나 유튜브에

서 했으니, 네이버로서는 일단 접근성 자체가 문제였을 것이다.

네이버 나우는 바로 이 점을 해결해준다. 아이돌이나 힙합에 관심이 많은 세대에게 '인기 스타들의 생방송을 공짜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다시 듣기도 안 되니 시간에 맞춰 네이버 앱을 열어야 한다. 사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네이버 앱을 반복적으로 열게 되므로, 네이버 앱 자체에 익숙해진다.

또 음악과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이어폰으로 그냥 듣게 된다. 자연스럽게 네이버 앱을 열고, 귀로 듣는 루틴이 형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네이버는 음성 검색, 음성 콘텐츠, 음성 서비스를 실험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앱 열고 귀로 듣는 루틴

이쯤해서, PC 시절의 네이버 메인을 다시 생각해보자. 당시 네이버의 핵심 가치는 한글 검색 최적화에 있었다. 그런데 검색 기능만 제공하면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 오래 머물 이유가 없었다. 네이버의 주요 수익모델은 사용자 규모를 기반으로 한 배너 광고였다. 이 광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네이버는 사용자를 잡아둘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창 주변에 여러 미디어와 서비스 탭이 배치되었다. 특

히 2009년 무렵에 시작된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 지식인의 서재, 황석영 작가의 '개밥바라기 별' 독점 연재, 네이버뮤직의 이 주의 발견 등 네이버의 '무료' 콘텐츠는 압도적 퀄리티로 사용자를 네이버 안에 묶어두고 브랜딩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최근 몇 년간 급변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런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우가 바이브와 직관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는 게 새삼스럽다. 나우는 그야말로 네이버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여야 하므로 바이브와 연결 고리는 최소한으로 두고, 라디오를 롤모델 삼아 하이 퀄리티의 음성 콘텐츠를 제공한다. '경험'이 우선이므로 좋은 선곡은 필수적이다. 아무리 봐도, 네이버 나우는 네이버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의 일부다. ⑦



차우진_ 음악평론가. 미디어 환경과 문화 수용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청춘의 사운드> <대중음악의 이해> <아이돌: H.O.T부터 소녀시대까지...> <한국의 인디 레이블> 등의 책을 썼고, 유료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에서 <음악 산업, 판이 달라진다> 리포트를 발행했다. 현재는 '스페이스 오디타'라는 스타트업에서 팬 문화, 콘텐츠, 미디어의 연결 구조를 고민 중이다.



프란시스코 데 고야, '1808년 5월 3일', 캔버스에 유화, 266×345cm, 1814,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프랑스군 총구 앞에서 뭘 외치는 걸까?

파블로 피카소(1881~1973)와 살바도르 달리(1904~1989). 20세기 세계 미술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스페인 출신의 두 거장이다. 이들에 앞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궁정화가이자 기록화가·판화가로 이름을 떨친 프란시스코 데 고야(1746~1828)도 스페인 근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다.

1746년 3월 30일 스페인 북동부 아라곤 지방인 사라고사 외곽의 푸엔데토도스에서 태어난 고야는 금 도금업자인 아버지 호세

고야의 영향으로 당대 예술가들이 성당 제단을 도금으로 장식하고 성당을 개조·복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화가로서 재능을 키워나갔다. 성당 소속 화가를 거쳐 1783년 카를로스 3세 측근으로 실세인 재상(宰相) 플로리다블랑카의 초상화 제작을 계기로 고야는 왕족과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1786년 왕실의 태피스트리(장식용 직물) 제작에 종사하는 공식

화가(궁정화가 바로 아래 직책)로 임명된 데 이어, 1788년 12월 카를로스 3세가 사망하고 카를로스 4세가 왕위에 오른 지 4개월 만인 1789년 4월 마침내 고야는 궁정화가에 임명되었다.

호사다마(好事多魔)일까. 46세이던 1792년 콜레라 전염병에 걸린 고야는 심한 고열의 후유증으로 청각을 잃게 된다. 미술사가들은 1792년을 기준으로 고야의 작품 경향을 고야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전기 작품들이 주로 왕족과 귀족의 초상화를 그린 화사하고 밝은 풍인 반면, 후기는 프랑스의 스페인 침공과 문명사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역사 기록화와 판화집 등 무거운 주제를 어두운 톤으로 그린 작품들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청각 잃고 '웃 벗은 마하'로 궁정화가 박탈

1799년 수석 궁정화가로 승진한 고야는 초상화가로서 전성기를 달리던 중 1800년, 1점의 충격적인 작품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세상을 뒤흔들었다. 고야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웃 벗은 마하'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로 그 작품이다. 고야는 이 그림에 신화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의미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여인의 알몸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외설 논란은 물론 신성모독으로까지 번진 '웃 벗은 마하'에 대한 외압에 시달린 고야는 1803년 똑같은 자세로 웃을 입은 '웃 입은 마하'를 제작하지만 종교재판에 회부되는 위기를 겪은 나머지 궁정화가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1808년부터 1814년까지 6년 동안 이베리아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과 이에 대항한 스페인·영국·포르투갈 동맹군 간에 펼쳐진 이 전쟁은 '반도전쟁'이라 불린다. 고야의 작품 '1808년 5월 3일'은 반도전쟁 당시 스페인을 침략한 프랑스군의 만행을 고발한 역사 기록화다. 고야가 반도전쟁을 다룬 또 다른 그림 '1808년 5월 2일'과 10년 동안 제작한 판화집 <전쟁의 재난>도 프랑스군의 잔혹한 학살 행위를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지만 '1808년 5월 3일'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프라도미술관에 소장된 이 그림은 반도전쟁이 끝난 1814년에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작품이다. 전쟁의 잔혹성을 널리 알린 역사 기록화답게 세로 266cm, 가로 345cm 크기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808년 5월 2일, 스페인을 침략한 프랑스군의 수장 나폴레옹이 자신의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으로 앉히고 무자비

한 학살을 일삼은 데 분노한 마드리드 시민들이 이날 일제히 들고 일어나 폭동을 일으켰다. 다음 날 새벽, 프랑스군은 폭동 주모자와 폭동에 가담한 수천 명의 군중을 체포해 무참하게 처형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그림은 1808년 5월 3일 새벽 마드리드 외곽 프린시페 피오 언덕에서 벌어진 프랑스군의 학살 행위와 전쟁의 비극성을 탁월한 사실주의 기법으로 고발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그림에 대해 고야가 1808년 5월 3일의 만행을 직접 목격한 뒤 훗날 그 기억을 되살려 그림으로 재현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당시 고야는 청각을 잃은 상태였다. 당연히 총소리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총소리를 듣고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참상을 두 눈으로 직접 봤을 것이라는 추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작품은 분명 역사 기록화다. 그런데 역사 기록화에 마땅히 등장하는 민중의 영웅, 전쟁 영웅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은 화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왼쪽에는 프랑스 병사들에게 이미 총살당해 붉은 피를 쏟은 채 참혹하게 널브러진 시신들과 총살당하기 직전 겁에 질린 희생자들이 보인다. 화면 오른쪽에는 총살 직전 희생자들을 향해 일제히 거총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 군인들이 서 있다.

총구 앞 남자의 움푹 팬 손바닥

그림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흰색 상의와 노란색 바지를 입고 두 손을 펼쳐 만세 자세를 하고 있는 남자가 보인다. 이미 죽은 이들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희생자들이 서 있는 그림 왼쪽에 밝은 빛이 집중돼 있는데, 옷 색깔과 자세 때문에 이 남자만 유독 돋보인다. 죽음을 재촉하는 총구 앞에서 남자는 무슨 말을 외치고 있는 걸까. 남자의 오른 손바닥을 보면 움푹 팬 상처 자국이 선명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을 다할 때 생긴 성흔(聖痕)인가. 남자의 자세와 손바닥 상처, 그림 전반에 질게 드리운 죽음의 기운은 이 남자가 스페인의 독립과 스페인 민중의 구원을 외치며 기꺼이 희생을 자처한 구세주임을 암시한다. ㉠



박인권_ 문화 칼럼니스트, PIK문화연구소 소장으로서 전 <스포츠서울> 문화레저부 부장과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팀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시와 사랑에 빠진 그림>(2001), <미술전시 홍보, 이렇게 한다>(2006), 미술 연구용역 보고서 <미술관 건립운영 매뉴얼>, <미술관 마케팅 백서>(이상 2006) 등이 있다.

공감 리뷰

519호



아프리카 난민들이 사진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만약 우리 국민이 난민이 되어 타국에서 사진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어떨까' 생각해봤다.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심정,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애달픔, 타국에서 불안한 삶. 과연 이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기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보았다. 김지하 씨 본인이 그러했듯 사진을 찍으면서 스스로 치유되는 경험은 아프리카 난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인내심을 갖게 된다는 다짐, 머지않아 다시 달릴 것이라는 희망, 성공의 열쇠라는 바람.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아프리카 난민을 비롯해 많은 소외계층에 확대되길 바란다.

김정선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8호



바쁘다는 핑계로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고 있었네요.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신남방, 신북방 국가 시장개척을 위해 발로 뛰는 세일즈 외교를 펼쳤는데 특히 기업들의 관련 시장 진출을 도와 해외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니 놀랍습니다. 커버스토리로 나온 이슬람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할랄 인증 재료를 활용해 K-푸드를 만드는 모습! 보기만 해도 정말 흐뭇합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정이 팍팍 생기는 것 같아요. 희망이 아주 많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지원 강원 원주시 원문로

사진 공감



50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초록 왕버들과 보라 물결 맥문동이 만나 장관을 이루는 성주 성밖숲을 아시나요? 보랏빛 맥문동과 왕버들 그리고 300~500년의 무게를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 지지대의 도움이 절실한 듯합니다. 때마침 이곳에 강수지 씨의 노래 '보랏빛 향기'를 떠올리는 모델님이 지나가 동화 속 풍경이 되었어요.

유향미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무척 더운 여름날 청계천에서 어린 딸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중국인에게 사진 한 장을 청했더니, 내켜 하지 않는 딸까지 설득하며 흔쾌히 포즈를 취해줍니다. 집에 와서 보니 당시 두 사람의 기분 상태가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네요. 스스럼없는 아빠와 즐겁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중 느닷없이 들이닥친 카메라가 낯선 소녀... 고맙고 미안합니다.

남궁자영 서울 용산구 이촌동

독후 공감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 · 황선우, 워즈덤하우스, 2019

이 책은 10년간 독거 생활에 외로움이 파고들 무렵, 함께 살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은 SNS에서 6년간 '리스펙트'하는 사이로 지내다 서로 잘 맞아서 살게 된 경우다. 각에 피소드는 1인칭 시점에서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한 두 동거인이 번갈아가며 '히로에라키 담긴 일상'을 담았기 때문에 각자의 시선을 실감 나게 느낄 수 있다. 이들은 서로에게 즐거움과 좋은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살아온 인생이 달라서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한다.

한때 나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고, 혼자 살기엔 무서워서 친구와 독립을 생각했다. 그러나 서로 달라서 생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 지레 겁먹어 포기했다. 그러나 두 작가는 서로의 배려로 생활습관과 가치관에서 오는 간극을 잘 메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 생각과는 달리, 그 배려의 시작은 '싸움'이었다. 작가는 싸움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삼을 들고 감정의 물길을 판 다음 잘 흘려보내기 위한 싸움이다. ...서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 ...전혀 싸우지 않을 때의 허약한 평화보다 훨씬 건강함을 나는 안다." 돌이켜보면 불쾌감을 주

는 타인의 반복된 행동에 혼자 공공 앓다, 한계에 도달하면 상대방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던 듯하다. 이 구절을 읽으며 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에 용기를 얻었다.

또 작가는 타인을 외국에 빙대며 토틸 엔터테인먼트(total entertainment)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온도·습도의 기후대와 문화를 품은 다른 나라 같아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외국을 여행하는 것처럼 흥미로운 경험을 준다.' 타인은 이처럼 단순한 일상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들거나, 혼자라면 하지 않을 일로 흥미를 북돋우기도 한다. 나는 멀미가 심해 배와 상극이라 뱃놀이를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친구의 품에 넘어가 배 위에서 그물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타인이 아니었으면 못할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경험이 었다. 이렇게 일상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참 행복한 일인 것 같다.

이 책은 일상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담은 듯하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두 작가는 일관되게 '함께 노력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외친다. 이런 기반이 단단한 이들의 이야기는 스스로를 성찰하게도 한다. '혹시 내 삶에 갇혀 내 의견만 내세우지는 않았을까?' '타인에게 배려다운 배려를 했을까?' 동시에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 타인으로 인해 지친 날보다 행복한 추억들이 떠올라 힘을 얻기도 했다. 이 책은 관계에 지쳐 너털너털해진 당신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것이다.

하아름 AHRA 제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작가님의 사진클리닉



Q 테마가 뭔가요?

A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본인이 찍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꽃을 찍고 있다고 합시다. 꽃을 찍으면서도 뭘 찍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자고 하니가 따라간 것입니다. 일출이든 별의 궤적이든 단풍이든 다른 사람들이 가자고 해 따라갈 수 있고 그게 본인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그 사진들을 찍고 있다면 그 순간에는 본인이 뭘 하는지, 왜 하는지 스스로 설명이 돼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된다면 그걸 찍는 자체가 틀렸습니다. 다른 테마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사진 공감'과 '독후 공감', '작가님의 사진클리닉'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곳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순간은 '사진 공감'에, 읽은 책에서 느낀 감동을 나누고 싶은 글은 '독후 공감'에, 조언을 듣고 싶은 사진은 '작가님의 사진클리닉'에 실립니다.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도 되고 사진마을 참여마당(http://photovill.hani.co.kr/participation)에 올려도 됩니다. '사진 공감'과 '독후 공감'에 선정된 분께는 기프티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같이 보내주시지요.

디지털 <위클리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공감 gonggam.korea.kr

post.naver.com/mcst_pr

www.facebook.com/wegonggam

blog.naver.com/mcst_pr

1boon.kakao.com/weekly

www.instagram.com/wegonggam

riditbooks.com

digital.kyobobook.co.kr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소감,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25일까지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주시지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을 통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마포구 효창동길6 한겨레신문사 6층 매거진본부

<위클리 공감> 편집부 앞(우 04186)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계절의 안부 살아가는 힘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계절이 있다. 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계절이란, 딸기우윳빛으로 물든 벚꽃을 보며 누군가를 너그럽이 사랑할 수 있는 봄일 수도 있고 열대야가 별빛처럼 쏟아져 내리는 한낮의 여름일 수도 있으며 어느새 떨어진 낙엽을 보며 울긋불긋 홍조로 가득한 두 뺨을 연상케 했던 어느 가을일 수도 있다. 불현듯 차가운 바람 사이로 빠져나간 따뜻한 온기를 놓치지 않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던 그해 겨울이 떠오를 때, 모래알처럼 작고 반짝이는 계절의 빛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호시절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계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나을 거라는 시절의 빛이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계절이 변화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곤 한다. 잘 지내고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등 일상의 대화만큼이나 지극히 평범한 언어로 묻는 나의 안부 속에서, 타인의 상냥한 모습을 상상한다. 어쩌면 타인의 계절이 담긴 모습을 상상하는 건 온전히 나의 몫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타인에게 안부를 물을 때 최대한 편지처럼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포개진 옷처럼 소소하게 겹친 서로의 시간들을 떠올릴 때면 '아직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된다. 늘, 다정하게 묻는 안부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계절이 주는 호사 같은 선물이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며칠 전, 어제 만난 사람처럼 반갑게 안부 인사를 건네고 싶었던 타인에게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는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 두 볼이 빨갛게 익어가는 주근깨 소녀가 되어버렸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에, 어쩌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까지 들려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조금은 생존하느라, 여전히 살아내느라 힘들었을



것 같은 세계에서 잘 지내줘서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느꼈다.

아직도 날씨가 많이 덥지 않냐는 물음에 나는 답긴 해도 이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다행이라고, 안부의 연락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꼭꼭 눌러 담아 보냈더니 역시 타인도 나와 같은 마음이어서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라며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깊은 애정을 담아 말해주고 싶었다. 누가 먼저 안부를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나는 계절의 힘을 믿는다. 이 계절의 힘은, 나에서 우리로 연결해주는 눈부신 근사함을 가지고 있다. 각자 저마다 아름다운 계절이 있음을 믿으시길. 그래서 그 아름다움 믿고 살아갈 때에 조금씩 열어져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느끼는 안부를 한 번씩 떠올려주시길, 서서히 점철돼가는 공간 안에서 로가 있었기를.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계절과 시절을 보내고 있을 모두에게 언제나 파이팅! ⑦

임지현 서울 강동구 천호3동



국민할배와 서민금융이 만났다!



홍보캐릭터 포옹이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봅시다!”

홍보대사 신구

서민자금 지원	• 창업·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대학생·청년 햇살론 • 전통시장 상인대출
서민생활 지원	• 종합상담 • 자영업 컨설팅 • 맞춤대출 • 취업 연계 • 금융교육 • 복지연계
저금리 전환	• 바퀴드림론 • 햇살론 대환대출 • 안전망 대출
대출보증 지원	• 근로자 햇살론 • 온라인 햇살론
원권리자 보호	•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정책풀고

01

아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2019년 2학기부터 ■■ 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 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 ☐ 초등 ☐ 중등 ☐ 고등

02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취향따라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 주장은?



- ☐ 가을게임주간 ☐ 가을여행주간 ☐ 가을여가주간

03

아래 내용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 중심·□□□□, 2020년 예산안

-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 혁신성장 가속화
- 경제 활력 제고
-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합니다

- ☐ 국민, 경제강국 ☐ 과거, 경제강국 ☐ 해외, 자원강국

04

아래 내용이 공통적으로 뜻하는 것은?



- ☐ 치매국가책임제 ☐ 치매기관책임제 ☐ 치매병원책임제

- 참여방법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이벤트 팝업에서 참여 가능
- 참여기간 2019년 9월 4일(수)~9월 22일(일) 까지
- 결과발표 2019년 9월 27일(금)/ 정책브리핑 누리집

정책브리핑



QR 코드로 이벤트 참여



무선청소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홍심 세트



편의점 상품권